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

문 복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가장이 된 나는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던 남편의 친구 중 한 분이 제법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다며 정규채용 시기가 아니니 다만 얼마라도 인사담당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중환자실 투병으로 이미 집에 돈이 떨어진 지 오래였고, 고3, 중3 두 아이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일자리가 너무도 간절하였지만 옳지 못한 방법이란 생각에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 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이웃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채용공고가 났다며 이력서를 내보라고 알려주었고 난생 처음 문구점에서 이력서를 사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다가 변변한 학력도 경력도 없어 행여나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였고, 오랜 간병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내게 힘든 일인데 잘할 수 있겠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뽀아만 주시면 성실히 일하겠노라 간절한 눈빛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한 터라 지원자가 많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뒤에 알게 된 이야기로 워낙 일이 힘들어 피골이 상접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너무나 간절하게 지원의사를 밝혀 기회를 주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여자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들이 많았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한 동료들과 달리 집안의 가장으로 두 아이들의 교육비에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저는 그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할 수 없는 처지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가 되어 집에 올 수 있었고 출퇴근 거리도 버스 두 번을 갈아타야할 만큼 멀고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여 청소도 하고 야근과 특근까지 도맡아 하며 성실히 일한 덕분에 입사 후 몇 년이 지나 조장이 되었습니다. 축하하는 동료들에

게 나이가 제일 많아서 회사에서 왕 언니로서 대우를 해 준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지난 세월을 인정받는 것 같아 더욱 열심히 일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 년 정도 조장을 맡아하고 있는데 나이가 한참 어린 동료자 자신이 조장이 되고 싶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고, 급기야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나쁜 소문까지 사무실에 퍼트려 회사의 분위기가 흉흉해졌습니다. 생각다 못한 저는 보직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상급자에게 명절마다 좋은 선물로 인사를 잊지 않던 그녀가 조장이 되었습니다. 조장이 되면 보직 수당도 있고 업무배치도 할 수 있어 이래저래 득이 많았습니다.

“언니, 뭐한다고 조장을 그만 뒀습니까? 언니도 저 언니처럼 명절에 인사도 쪼매하면서 그냥 버티지, 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까!”

새로 조장이 된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고 업무의 배치에 있어서도 항상 제일 힘든 일만 주어 정말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고단한 나날을 보내자 저를 걱정해주는 동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더구나 조장 욕심에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소문마저 퍼트렸던 터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누명까지 쓰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 저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하는 것이 회사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아 그저 묵묵히 일을 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일을 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지만 파스 투혼을 하며 결근 없이 더욱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생겼던 해 우리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인원 감축이라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어느 누구 한 명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간다는 사람이 없어 회사에서는 얼마간의 숙고 끝에 해고통지서를 해당 직원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웬지 해고 대상자는 바로 저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은데다가 일도 못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누가 봐도 일을 그만두어야 할 1호 대상자는 바로 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더구나 '명절에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뒤늦은 후회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말한 것처럼 워낙 대쪽 같은 성격이라 잘 봐 달라는 대가를 바라는 선물은 뇌물 같아 싫었고 편한 포지션을 위해 뇌물을 보내다 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일로 배치되는 것 같아 그러질 못했습니다. 대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회사를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 인원을 줄이겠다는 회사의 방침을 듣자 불안한 마음에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당장이라도 해고 통지서를 줄 것만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갑작스레 직원 조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어느 날과 달리 더욱 무겁게 입을 여시더니 급기야 일을 그만 두는 직원이 생겼다고 슬픈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동안 애써 주신 직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미 해고통지서를 받고 본인임을 아는 동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와서 짧지만 슬픈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그 대상자 속에 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뜻밖의 결과에 좀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워낙 힘든 일이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우리 회사 정년퇴직 1호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으며 성대한 정년퇴임식을 준비하겠노라 회사 측에서는 제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다른 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날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식도 없이 그냥 똑같이 새벽에 출근하여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다시 정든 작업복을 입고 일할 일이 없으니 한복에 올림머리를 하며 꽃다발을 받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겠노라 뜻을 전한 것이지요.

"역시 문 여사답습니다. IMF 때 회사에서 인원감축이 있을 때 사실 문 여

사님이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 공장 곳곳을 청소하는가 하면 작업일지를 보다보니 항상 힘든 파트 맡아 하면서도 바뀌 달라 힘들다 불평 없으셨던 노고가 드러나 감축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신 것이지요. 여사님이 동료들 보다 나이 차이가 많아 걱정이었지만 여사님의 청렴하게 근무하는 모습이 어린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윗분들의 생각이셨는데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식을 놓고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간 알지 못했던 사실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누가 알아줄 거라 생각지 않고 묵묵히 지냈었는데 저에게 청렴이라는 고마운 말로 노고를 치하해 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여사님이 계속 회사에 남아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밖의 제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사는 제게 삶의 터전이었고, 아이 둘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어린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제가 행여 회사에 누가 될까 싶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나이 많다고 편한 자리 달라 청탁이나 뒷거래 한 번 없이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일해 온 저의 진심이 정년퇴직이라는 영예를 안게 한 것이라 생각하니 제 스스로 너무나 대견하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온 동료들과 친구들은 반듯하게 살아온 남편에 대한 일들을 추억하는 모습을 보며 승진 때마다 번번이 미끄러지는 그를 무능하다 융통성이 없다 어지간히 바가지를 긁은 것이 너무나 미안하였습니다. 윗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은 점점 커 가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직책을 갖는 것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냐며 잔소리를 하였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소신 있게 살아왔습니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니? 아저씨가 일이 많아 퇴근이 늦을

때마다 함께 남아 도와주시고, 회사 일이 원리원칙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용기 있는 분이셨단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우리 가족에게 동료들은 살아생전 청렴한 남편의 모습을 전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지난 세월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청렴은 그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유산이라고 말하던 남편의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뿐이라고 허술하게 마음을 먹었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부패, 청렴은 바로 습관이라고 말하던 남편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시절 청탁으로 집에서 가깝고 편한 대기업의 일자리를 얻는 대신, 집에서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 두 번 갈아타는 먼 거리에 힘들고 고단한 중소기업의 여공으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아 ‘잘못된 결정이었나?’ 돌이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새벽에 출근하여 늦은 밤 퇴근하며 성실히 일하는 엄마를 보며 열심히 공부한 탓에 두 아이 모두 과외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국립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졸업하여 청렴한 공무원과 모범 제빵사로 올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얼마 전 손주 장난감을 사러 물건을 사고 돌아왔는데 영수증을 보니 오만원 정도 계산이 덜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는 저로서는 이게 웬 횡재인가 싶기도 했지만 다음 날 손주와 함께 가서 물건 값을 치르고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멋있다! 정직한 우리 할머니 최고!”

할머니의 바른 행동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손주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청렴이야말로 소중한 삶의 진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육십 인생을 살아보니 청렴하게 살아온 지난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유산이라는 걸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첫 마음

남 윤영

“엄마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큰 아이가 묻는 말에 나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교사의 일을 그만 두고 주부로 살아온 지 10년도 더 지났다. 옛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어떤 말을 해주어야할지를 망설이는데, 문득 어떤 사건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가슴에 강직함과 열정을 가지고 중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던,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

교사가 되던 첫 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담임을 맡았다. 처음으로 중학생이 되던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서 나는 마음을 먹었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의 분위기도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만들어주었다. 종종 교사들의 촌지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선배 교사들은 신규 교사들을 붙들고 깨끗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동료 교사들은 어쩌다가 학부모님들에게 받은 상품권이나 선물을 두말할 것 없이 돌려주었다. 그 당시 나는 촌지 문제를 깨끗하고 강직한 교사의 유일한 척도로 여겼던 것 같다. 그래서 촌지 문제 하나 없이 지내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학금 관련 업무로 교장실에 가게 되었다. 휴일마다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던 축구회에서 장학금을 기부했고, 장학 관련 교사들의 협의 절차에 따라 장학생들이 결정되어서였다.

당시 장학계를 맡고 있던 나는 교장 선생님 앞에 결재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다. 교장 선생님은 다른 때와는 달리 결재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잠시 망설이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다.

“남 선생님, 장학금에 대해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결재 서류 위에다가 납부금 미납자 명단을 올려놓더니, 말을 계속했다.

“여기 이 아이들이 곧 졸업예정인데, 납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도 어렵지 않은 아이들인데,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납부금을 내지 않았어요. 이대로 졸업해버리면 학교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교장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앞에다 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남 선생님, 장학금을 선정된 학생이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그 금액으로 미납금을 메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학교를 위한 일입니다.”

그 순간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결재 서류를 들고 교장실을 나왔고, 교무실까지 가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다.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머리가 아프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장학금을 주지도 않고, 서류로만 장학금을 준 것처럼 꾸며 놓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빼돌린 장학금으로 미납금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지시 사항을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빼돌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장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를까?’

아주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까지 했다.

‘촌지 문제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 아이가 생각났다. 장학금을 받기로 예정된 아이였다. 그 아이는 장학금 협의를 할 때도 거의 모든 교사들의 추천을 받았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였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그 아이는, 점심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급식 신청도 안 하고, 도시락도 못 싸오던 아이. 가끔 교사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그 아이에게 건네는 일도 있었고, 반 친구들이 점심을 나누어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 아이에게 가야할 장학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교무실로 들어간 나는 제일 먼저 장학금 관련 협의를 함께 했던 동료 교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과 관련된 교장 선생님의 계획을 과감히 드러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들끓듯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장학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던 중 교장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고 했다. 왜 나를 찾는 걸까? 혹시 장학금과 관련해서 동료 교사들과 몰래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을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교장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 안으로 들어가 기까지 마음이 어지러웠다.

교장실에서 본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 앞에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잠깐 생각하는 사이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남 선생님,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가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처럼 신규 교사로 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정직이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된 첫 해에 그 처음의 마음을 잊고, 실수를 저지를 뻔했군요.”

교장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첫 마음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부패한 세상으로 진입하려던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첫 마음을 기어이 찾아내어, 더러운 세계로 뻗치려 하던 자신의 마음을 돌리던 순간이었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어내려던 욕심에 선을 긋는 고귀한 순간이었다.

시작할 때의 마음이 순수하고 신선하더라도, 그 마음에 흠집이 생기면 모든 상황이 금세 변할 수 있는 있다는 걸 깨닫자, 나는 나 역시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함을 알았다. 교장 선생님이 부당한 지시사항을 내렸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당함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게 창피해졌

던 것이다. 또 잠시나마 교장 선생님의 부당한 지시사항에 순순히 따를까, 하며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몹시 부끄러웠다. 촌지 문제만 아니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몹시도 창피하게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축구회에서 수여하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달해주었다. 여유 있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장학증서를 건네주던 교장 선생님의 얼굴 속에서 강직하고 깨끗한 교장 선생님의 첫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며칠 뒤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술이 적은 하얀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 한 분이 두 손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복도에 서 계셨다. 알고 보니 축구회 장학금을 받은 아이의 할머니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장학금을 다 주시고.....받은 장학금으로 우리 애 급식 신청해 주려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장학금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장학금을 담당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고 돌아서셨다. 곳곳하지 못한 허리로 복도를 느릿느릿 걸어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하여 분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교사생활을 하자고 다짐했었다.

그 뒤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교사도 아니지만, 내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그 이후로의 내 삶은 나의 첫 마음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였다. 신념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반대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를 두고 항상 선택을 요구받았다.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첫 마음을 살펴보면 다시 설 수 있었다.

“엄마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나는 큰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한 첫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였

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교사가 아닌 지금도 유효하다고.

청림 보신탕

김 관주

혹시 뱀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은 뱀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사람과 도망가지 않고 뱀에 관심을 보이거나 뱀을 잡는 사람. 저는 당연히 전자에 속합니다. 왜냐고요? 그냥 무섭습니다. 남자가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섭습니다. 뱀을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갑자기 뱀 얘기냐고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회사에 막 입사를 하고 나서 생긴 뱀과 얽힌 사연 때문입니다.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졸업반이었던 저는 집안일을 도우러 잠시 고향인 보길도에 내려왔다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라는 곳에서 '자연환경안내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보길도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만큼 국립공원에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집 공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지원서를 넣은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첫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은 현재까지 저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으로 근무하게끔 이끌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을 보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제가 처음 지원했던 "자연환경안내원"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생태해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비록 비정규직 신분이었지만 생태해설을 하면서 몰랐던 자연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 있었습니다. 뱀과 마주쳤던 그날도 저는 탐방객에게 소개할 생태해설 자료 등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보길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 도로 위에 검은 줄 혹은 띠로 보이는 것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점점 다가가보니 웬걸? 줄이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2미터 정도 되는 건강한 암컷 먹구렁이 한 마리가 밤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따뜻한 도로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구렁이 담 넘어 가네”라는 속담과 비유가 있을 정도로 구렁이를 쉽게 보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의 구렁이는 보신이니 뭐니 해서 무분별하게 남획되어, 현재 멸종위기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귀한 녀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뱀이 무섭고 겁이 났지만 도로에 올라와 있는 녀석이 혹시나 차에 치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른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뱀을 무서워하는 터라 뱀을 옮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마침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막대기가 하나 보였습니다. ‘웁지, 저 막대기로 뱀을 몰아서 이동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뱀을 몰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주야, 그놈 도망 못 가게 잡고 있어라”

목소리는 이웃에 사시는 제 오촌 당숙이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예, 당숙”

하고 대답한 후, 구렁이를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린 채 오히려 막대기를 이용해 구렁이의 퇴로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당숙을 살짝 보는데 환갑이 넘으신 분이 눈썹을 휘날리며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도 고르시지 않고 당숙께선 구렁이를 맨손으로 덩석 잡더니

“아따 고놈 실하네! 허허”

하고 너털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곤 손에 쥔 구렁이의 상태를 눈으로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구렁이의 건강상태에 매우 만족하신 듯 당숙은 얼굴에 한 가득 미소를 지으며,

“관주야, 고생했다. 바쁠텐디 얼른 일 보거라이!”

라고 한 말씀하시고는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 큰일 났다!’ 그제야 일이 꼬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숙께서 저 구렁이를 보신에 쓰려고 하시는 거구나.’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구렁이를 보호해야할 제가 오히려 귀한 구렁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몬 것이었습니다. 그 때 당숙은 3년 전 암 선고를 받고 2년 전에 수술을 하셔서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황이었으며, 회복을 위해 몸에 좋다는 보신재료와 한약 등을 많이 구하신다는 말을 부모님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런데 오늘, 보신 재료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한다는 튼실한 구렁이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고 부모님과도 친분이 두터우시며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이웃사촌인 당숙인지라, 거기다 최근의 건강악화에 대한 연민까지 느껴져 그 구렁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므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팡질팡 고민하는 사이 어느덧 당숙은 집을 향해 사뿐사뿐 걷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놔 달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는 머릿속으로만 '놔 주세요! 제발 놔주세요!'를 반복하며 당숙을 졸졸 쫓아갔습니다. 당숙의 집 앞에 도착해서 막 대문을 들어가시려는 찰나, '저 문을 넘는 순간 구렁이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당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당숙..."

"그래? 우째 뭘 불일이 있어서 안가고 거기 있다냐? 오늘 요놈 꼭 고아서 너희 아버지 불러다가 한 그릇씩 할려는디."

역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까지 부르신다니...이러다간 동네에 내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잡아다 당숙과 아버지 몸보신 시켜드렸다고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럼 저는 국립공원 직원으로서 얼굴도 못 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당숙. 사실은 그 구렁이를 다시 놓아줘야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당숙은 약간 불쾌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며,

"아니 힘들게 잡은 놈을 뭐한디 보내줘야?"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렁이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차에 치여 죽을까봐 밖으로 몰고 있었다, 또 먹구렁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희귀한 녀석이라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런 저런 설명을 해 가면서 구렁이 구출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당숙은 설명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언짢으신 듯 표정이 일그러지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냉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느그 당숙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 놈 가지고 몸보신 좀 한다는 데 그게 그렇게 못 마땅해서 여그까지 쫓아와서 놔 주라, 마라 하냐? 관주 너 착실하고 예쁘게 봐 왔는디 못 쓰겼구만!”

하시고는 대문을 ‘꽁’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는 대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조심 있다 다시 대문이 열리더니 당숙께서 나오셨습니다.

뱀을 잡고 있었던 당숙의 손에는 뱀 대신 만 원짜리 몇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숙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성질부려서 미안했다. 그리고 니가 고생해서 같이 잡아줬는디 내가 그냥 받을 순 없제. 이거 얼마 안되는 디 뱀 값이다 생각하고 받아둬라.” 하시며 저에게 오만 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당숙의 힘없는 모습과 애원 섞인 말을 듣고 계속해서 뱀을 놓아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안 받고 그냥 가겠노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숙은 기어코 제 주머니에 오만 원을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만 원을 당숙에게 받고 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차로 돌아오는 동안 오만 원이 담긴 주머니는 마치 갓들을 담고 있는 듯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립공원 직원이 보호해야할 멸종 위기야생동물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판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웅담, 상아, 모피 등을 구하기 위해 멸종위기생물을 마구 잡아 죽이는 저녁 뉴스의 단골손님인 밀렵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있는 봉투에 돈을 담고 다시 차에서 내려 당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잠겨있었고 당숙은 불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봉투에 메모를 남겨 놓고 차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해설 소재를 더 알아봐야 했지만 전혀 흥이 나질 않아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옆 당숙의 집이 보이자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 마당을 들어가는데 마당에서 아버지와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숙이었습니다. 당숙은 저를 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시곤 바로 아무 말 없이 대문 밖을 나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해진 저는 아버지께 당숙이 왜 오셨으며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시며 당숙과의 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니가 느그 당숙한테 살려주라고 사정했던 그 구렁이가 도망가버렸다. 그물에 담아서 대야로 덮어놔는데 힘이 워낙 좋은 녀석이라 그물을 풀고 도망가버렸다냐."

구렁이가 살아서 도망갔다는 소식에 저는

"아, 그랬어요?"

하고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를 외치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느그 당숙이 오늘 그 구렁이 잡아다가 꼭 고아서 나랑 먹자고 하려고 맘 먹고 있었는데 국립공원 다니는 조카 놈이 그러면 안된다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더라. 그래서 니 퇴근하믄 다시 너한테 뱀 돌려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살려고 도망쳐 버린거제. 허허"

아버지는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숙이 결정적으로 구렁이를 살려줘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제가 돌려준 봉투의 메모를 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돈이 든 그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숙 어린 조카가 맘 상하게 했다면 용서하세요. 하찮은 뱀일지라도 저는 국립공원 직원으로서 그 뱀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서 주신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처음 시작하는 직장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카 올림- 」

그날 이후, 당숙께서는 저의 국립공원 직장 생활을 더욱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 문제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가끔 명절에 고향에 오시면 꼭 저희 집을 들리시고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장난처럼 그날 일을 말씀하시며

“아따, 그때 니가 그 뱀을 못 잡아먹게 해서 내가 아직도 병원에 다닌다. 이놈아~~.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것인디 그때 같이 정직하고 소신 있게 하면 된다. 알것제?”

혈연, 학연, 지연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저는 언제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그때 그 구렁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제게 있어 그날 본 구렁이는 저의 직장 생활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준 청렴 보약이었습니다.

내가 본 남과 북의 공직윤리

김 태영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눈앞이다.

희망 없는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올해 안에 누적 3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선택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결상황에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미래 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탈북민들이다.

하지만 71년이라는 분단의 세월을 거쳐 온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감은 정말 크다. 그러다보니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많은 탈북민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만큼 북한사회와 남한사회는 극과 극이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는가? 한국에 온 지도 어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 한국생활에 많이 적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투성이이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다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나에게는 한국 사회생활이 어렵기 그지없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미래로 날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한국 사회정착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지하철과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한국에 와서야 처음 접하고 배웠다. 또 모든 것을 국가가 정해주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학업도, 취업도, 진로도 모두 자신이 알아서 정해야 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됐지만 갑자기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마냥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멘토 역할을 해준 분들이 바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직원들과 신변보호담당관, 지자체 공무원들이었

다. 한국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나에게 진로와 학업문제,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서도 가족의 심정으로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

사실 북한에서는 공직사회가 부패의 상징이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체계가 무너지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해졌다. 국가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쌀 1kg도 사기 힘든 상황이 되자 북한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온갖 구실을 붙여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는 한 발짝만 움직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물론 그 덕분에 탈북과 한국행에 성공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탈북을 결심하고 북-중 국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경여행증명서가 필요했다. 나는 안면을 익혔던 부대 기무과 간부에게 돈을 뇌물로 주고 국경여행증명서 용지를 얻어냈다. 그 다음 주둔 지역에 있는 인민보안서 여행담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국경승인번호를 얻어냈다. 그 덕분에 국경지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고 국경경비대 사관에게도 뇌물을 주고 두만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렇듯 북한의 공직사회는 말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사회주의신념과 청렴결백을 주장하지만 돈과 뇌물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 뇌물 수수는 북한 공무원들에게 필수적인 생존방식이다. 사실은 북한 전체가 ‘뇌물 공화국’, ‘부정부패의 왕국’이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보니 돈이면 다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은연 중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 어떤 기관이나 집단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사명감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공직사회였다. 또 내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되고, 만났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공직윤리를 갖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사회 정착 초기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나는 여러 차례의 실수를 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오던 날, 나는 진로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준 담당 직원 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 분이 펄쩍 뛰시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분이 체면상이나 예의상 한 번 사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드렸다.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마워서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다.

“태영씨.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잘 알겠으니 이걸 도로 가져가세요. 이런 건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아서도 안 됩니다. 태영씨가 사회에 나가서 잘 정착하는 것이 제일 고마운 선물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는 알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말에 나는 조금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탈북민이어서 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성의 표시가 너무 보잘 것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자격지심이 발동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학입학과 대학생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손잡아 이끌어 주고 채찍질도 해주었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더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청렴성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공직윤리의 하나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감사의 표시, 성의 표시라고 생각한 것이 상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것이 크든 작든 국가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민원인이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물건이나 돈을 받는 것이 곧 뇌물인 것이다. 업무처리와 관련해 사전에 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업무가 처리된 이후에도 감사 표시를 한다고 하면서 준 것도 엄밀히 따지면 뇌물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전에 주는 것은 몰라도 일이 잘 풀려 사후에, 정말 고마운 마음에 성의가 담긴 자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 비리문제를 엄중히 보고 처벌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의문은 점차 해소됐다.

특히 지자체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학 졸업 후 나는 한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북한과 접경지역인 그 지자체에서는 남북협력사업과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또 지자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래서 남북협력사업과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사업을 잘해 나가기 위해 남북한 양 체제를 다 경험해보고 탈북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했던 것이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내가 합격했다. 그래서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

내가 맡은 업무는 “6.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 업무였다. 6.25전쟁 당시 북한은 10만 여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납북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다. 비록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북한군 출신이었던 내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싶었다. 이미 수 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자료도 부족하고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단 한 사람의 증언, 단 한 줄의 역사적 자료라도 더 확보하고 납북되신 분들과 그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발로 뛰고 또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과 함께 목격자 증언 청취와 보증인 면담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지자체 경내가 워낙 넓은데다 하루에 여러 명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그러다 점심시간을 넘기게 됐다. 신청자 분과 면담을 이어가던 중 오후 1시가 넘어가자 그 분은 자기가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오후에 또 다른 분들과 면담이 약속돼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분도 완강했다. 자기 때문에 식사시간

도 늦어졌는데 식사도 안 시키고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장님은 그 분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여러 번이나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나와 함께 그 자리를 떴다. 시골에 사시는 그 분의 표정에는 섭섭함이 짙게 배여 있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병으로 늦은 식사를 하면서 나는 과장님에게 물었다.

“그 분 진심으로 서운해 하시던데 그냥 밥 먹고 와도 되지 않았을까요? 뭐 식당에서 비싼 식사 대접한다는 것도 아닌데 시골 어르신 마음을 괜히 아프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태영씨. 비싼 식당에서 꼭 비싼 식사를 대접받고 돈을 받아야만 뇌물이 아니야. 하다못해 천 원짜리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인에게 물건이나 돈을 받으면 그 자체가 뇌물이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어지럽히는 일이지. 인정에 못 이겨 이쯤이야, 이번만이야 하다가 뇌물에 둔감해지고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거야. 앞으로도 꼭 명심해.”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때야 하는 지를 더 깊이 깨달았다. 공직생활 뿐 아니라 먼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할 양심의 기준이었다. 그 후 나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서 공직사회를 떠났지만, 지자체에서 일했던 그 2년의 시간은 한국 사회 정착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고 배움의 장이었다. 대한민국 대부분 공무원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가치관, 공직윤리의 차이가 오늘날 남과 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추월 불가능한 격차의 근원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 현재 필요한 공직가치로 청렴성과 사명감, 책임감을, 미래에 요구되는 가치로는 청렴성 외에 다양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꼽았다고 한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윤리헌장에 명시된 주요 덕목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리사욕

에 눈이 어두워 뇌물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의 기강을 흔들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누가 알아주든 말든 양심과 정의감으로 묵묵히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공직자들, 국민의 충복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

위대한 유산

변 재영

산과 물이 맑고 인심이 좋아 '삼청의 고장'으로 불리는 경북 청도의 용각산 자락에, 일찍이 아버지께서는 서당을 열고 마지막 훈장으로 계셨다. 후학이래야 중등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는 스물 남짓한 아이들이 고작이다. 하지만 문중의 종친어른이기도 한 아버지께서는 제례와 길흉사의 집전, 작명, 침술 등 종무는 물론 고을의 대소사까지 주관하시느라고 늘 하루해가 짧았다. 특히 입춘방을 써 붙이는 정초에는 동네 전 가옥에 붙일 '춘축'을 쓰느라고 날밤을 새우기도 하셨다. 돈이 되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필묵과 한지 값도 부담이 되었지만 모두 무료봉사다. 글방에서 공부하는 학동들 역시 월사금대신 서당에 군불을 지필 수 있는 땔나무 한 짐이면 족했다.

쌀 한 톨 콩알 하나 하늘로 알고 살던 그 시절, 동네 팔구할은 중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었다. 나 역시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농사일을 도왔다.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우는 농촌생활은 참 어렵고 고단하다. 장정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우리 가족은 나무하랴 김매랴 산야에 땅거미처럼 붙어살았다.

선비는 무릇 곤궁하여도 의리를 잃지 않고, 출세하여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가. 청렴과 예절을 삶의 숙제처럼 곳곳이 지켜내려는 훈장님은 이런 가족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향에 절여 사셨다.

동네 사람들은 학문과 바른 인품을 소유하고 어려운 일에는 자신의 일처럼 나서주는 아버지를 공경했다. 따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할 뿐 챙기는 것이 없으니 존경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차라리 까막눈에 도별꾼으로 인간송충이 대접을 받는 앞집의 바우 아버지가 부러웠다. 가족만은 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농무에 시달리는 것이 모두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의 탓이라고 여겨졌다. 의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타적 삶만 강조하시는 아버지는 진정 안빈낙도의 삶을 즐기는 것 같아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다.

훈장님을 아버지로 둔 어려움은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엄격한 밥상머리 교육은 차라리 고문이다. 글자의 깨우침에는 다소 후하지만 예절에는 연습이 없다. 한 번의 실수에도 매질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깐깐한 훈육은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다. 남녀고하를 막론하고 골목에서 격식에 맞는 인사를 하지 않고 대충 목례로 지나가다가는 혼쭐이 나기 십상이다. 장중한 위엄을 가진 외모와는 달리 아버지의 속내는 부드러웠지만 버릇이 없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어른일지라도 대중 앞에서 뺨까지 치는지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번은 나보다 한참 형님뻘인 동네 청년이 모친을 구박한 것을 두고 나무라는 삼촌을 흥기로 찌르고 눈이 뒤집혀 온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적이 있다. 마을이장이 불이 났을 때나 울리는 비상종까지 난타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흥기까지 든 포악한 그를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질긴 삼노끈을 포승줄로 들고 오신 아버지께서 주저 없이 결박을 짓고 무릎꿇림을 시킬 정도로 매사에 두려움은 물론 거침이 없고 당당하셨다.

그 시절 나는 앞집에 사는 동갑내기인 물바우 형제와 땔나무를 하러 다녔다. 물바우 형제는 쌍둥이다. 그들에게 용수, 용암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동네사람들은 형제를 싸잡아 물바우(水巖)라고 불렀다.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 부친과 봉어빵 얼굴을 한 그들은 남의 도래솔까지 베어다 팔아먹는 아비의 심보까지 쑥 빼닮았다. 말림갓이 없는 우리들은 나무 한 짐을 하기 위해서는 재를 넘어 멀리 국유림이 있는 깊은 산까지 가야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해거름이 될 때까지 야산 기슭에 숨어 빈둥대다가 몰래 말림갓에 들어가 올곧은 나무만 순식간에 배어간다. 심지어는 남의 나뭇가리에 손을 대기도 했다.

유난히 겁이 많은 나는 양심이 없는 그들의 꼬임을 뒤로하고 늘 혼자 고

개를 넘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던가. 두 눈 딱 감고 한번만 인간 송충이가 되자고 각오했던 그날 저녁이다. 서당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잖아도 심장이 쿵쾅거리 좌불안석이던 나는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둥구리 어디서 해왔노?”

도끼눈 앞에 나는 얼굴만 붉어질 뿐이었다. 나무의 생김새만 보면 누구 멧갓의 나무인지 손바닥 보듯이 흰히 꿰뚫고 있는 아버지 앞에 서툰 변명은 화만 키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나뭇갓에 들지 않겠습니다.”

“잘못한걸 알면 얼른 나뭇짐을 챙겨지고 앞장 서거라.”

그 민망한 나뭇짐은 말림갓 주인집으로 향했고,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잘못 가르쳐 죄송하다.”

며 몇 번이나 아우뻔인 산주에게 고개를 조아리고는 화목을 넘겨주고 돌아왔다. 동네에서 예절바르기로 소문난 내가 도벌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매한 삶을 목숨으로 여기는 훈장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회와 아픔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쪽마루에 걸린 가훈(淸心:청심)을 두고 긴 훈육을 시작 하셨다. 해방 후 순사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라고 한다. 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한 동네어른들의 머리를 깎아준 것이 빌미가 되어, 온 동민들 앞에서 새파란 순사에게 뺨을 맞고 이발 기구를 압수당한 것이다. 동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효심에서 한 봉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초입에 있는 이발소에서 촌지를 주고 사주한 일이란다. 성난 동민들이 장터에 있는 이발소로 옮겨 가는 바람에 그 이발관은 문을 닫아 걸었다고 한다. 치욕의 통한을 생각하면 잘코사니에 속이 후련하지만 뜻하지 않은 한 가정의 몰락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만 것이다. 그래서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코자 청심(淸心)을 가훈으로 걸었다고 한다.

그동안 이 곡절한 가훈을 그저 목민심서에서 옮겨온 보타정도로 간과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직 흠 없는 마음으로 살려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동안의 날선 마음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

생각이 많았던 그날, 밤이 이슬하도록 청렴을 부끄러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그 후 농사일에 염증을 느낀 나는 명심보감을 접고 '통신강의록'으로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검정고시를 거쳐 1972년 총무처가 시행하는 세무직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검은돈의 유혹이 걱정되어 못마땅해 하셨다. 마침 공무원 정원의 95%운용이라는 제도가 생겨 소요가 많은 부처로의 이동이 가능한지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체신관서에 발령을 받았다.

흡족해 하시던 그 청백리는 몇 년 뒤 가훈 한 점만 유산으로 남긴 채 육순 중반에 먼 길을 가셨다. 맑은 마음으로 살라는 가훈 덕에, 내 뜻과는 달리 포도대장으로 통하는 감사실장 등 청렴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두루 거치며 부패방지에 노력하다가 지금은 편한 백성이 되었다.

이제 아버지께서 물꼬를 터놓은 청렴의 물결은 차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딸애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다. 가정방문 오신 선생님이 "자유가 효를 물어버린 이 시대에 현대판 심청을 만난 듯하다."고 탄복하시던 그 소녀는 지금 교편을 잡고 있다.

몇 해 전 일이다. 한 학부모가 신학기에 10만 원짜리 구두티켓 한 장을 보내왔다. 딸내미는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는 메모지를 넣어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 애물은 다시 돌아왔다. 학부모 또한 한 고집 하는 분이라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수차례, 결국 딸애가 백기를 들었다. 시비를 떠나 자존심싸움으로 학부모를 갈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딸애의 대답이다. 그날 딸애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구두티켓을 쪽쪽 찢었다. "애구 아까워라, 그럴 바엔 몰래 얼마나 줄 일이지" 속 모르는 집사람과는 달리 나는 가훈을 지키려는 가상한 마음에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밤손의 습성을 끊지 못한 고향동네 앞집의 물바우 형제는 10년 전,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토지수용보상금을 서로 많이 갖겠다고 혈투를 벌이다 노모를 죽이는 패륜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칼에 죽는 육체보다 돈에 죽는 영혼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청렴이 없는 사회에 올바른 싹이 자라나기는 어려운법. 사소한 유혹부터 절제하여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는 없지 않는가. 온 국민의 가슴에 양심을 가꾸어 별처럼 아름다운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면 '청렴韓 세상'은 오고야 말 것이다.

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돌이켜보면 보잘것없는 땀나무 한 짐의 도별조차 용납하지 않는 냉엄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결코 오늘의 나는 없을 것이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삶의 향기를 주는 불후의 자산이다. 장맛비가 줄금거리는 이 밤, 사랑의 매를 맞던 그 시절이 새삼 그리워지는 것은 웬 일일까. 태산보다 마음의 거울을 불립문자로 남겨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무릇 위대한 유산은 황금이 아닌 청렴이다.' 이것이 내가 이모작 삶에서 얻은 교훈이다.

봉투 속에 담긴 소중한 선물

유 철민

20여 년 전,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나에게는 5월의 특별한 기억이 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께서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고, 나는 두 살 터울의 어린 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부모님을 기다리다 잠들곤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늦은 귀가시간은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5월에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큰 행사가 셋이나 있었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그것이었다. 어린이날에는 가족끼리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이 내겐 최고의 선물이었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과 할머니 머리맡에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수줍게 두는 것으로 마음을 전달하고는 했다. 스승의 날에 대해서는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코흘리개였다. 그저 어설픈 연필 글씨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써서 드리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4학년이 되어도 나의 5월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느 때와 같이 치킨과 종이 카네이션으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스승의 날을 앞둔 하굣길에 친구와 함께 걷다가 스승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철민아, 너 내일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 선물 뭐 준비했어?"

"응? 선물을 왜 준비해야 해? 선물 준비해야 하는 거야?"

"너, 4반 반장 아니야? 원래 반장은 선생님께 선물하는 거야. 나도 우리 반 반장이라서 엄마가 선생님 와이셔츠랑 큰 꽃바구니 드린다고 하시던데."

밝은 성격 때문이었는지 1학년부터 줄곧 반장을 해왔던 나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 '반장을 하면 선생님께 선물을 해야 하는 거구나. 왜 나만 몰랐을까?'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기운 없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2학년인 여동생은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우리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다.

“미소야, 너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응. 내일은 스승의 날이잖아.”

“너 선생님 선물 준비했어?”

“그럼. 나는 선생님께 편지랑 공주님 그림 드릴 거야. 오빠는?”

“.....”

점심을 먹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밥상을 치우시던 할머니께서 내게 물으셨다.

“우리 강아지,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

“왜 말이 없어?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머뭇거리던 나는 힘없이 말했다.

“할머니, 내일 스승의 날인데 반장이면 선생님께 좋은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광현이가 말해줬어. 나랑 선생님 선물 사러 갈 수 있어?”

“할미가 돈이 어디 있어? 이따 엄마, 아빠 오면 말해보자.”

할머니 말씀을 듣고,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어 따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오늘은 기필코 부모님께서 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연습장을 꺼내서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사드리면 좋아하실까 하고 고적이기 시작했다. 구두, 가방, 화장품, 꽃다발 등 이것저것 적으면서 기뻐하실 선생님의 모습과 반장으로서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괜히 뿌듯해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예쁘시니까 화장품과 꽃다발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어서야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셨다. 엄마가 문 앞에서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달려가서 말했다.

“엄마, 내일 스승의 날이야. 나 반장이라서 선생님 선물 사 가야해. 지금 선물 사러가자. 화장품이랑 꽃다발 사면 될 것 같아.”

“애가 이 시간에 무슨 똥딴지같은 소리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안자고 있었어? 얼른 들어가서 자.”

“안돼. 선생님 선물을 사야한단 말이야.”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철민아, 스승의 날이라고 무조건 선물을 드리라는 법은 없어. 네가 아빠한테 준 것처럼 카네이션이랑 감사의 편지를 잘 전달해 드리렴.”

“안돼요. 저 반장이라서 꼭 선물 사가야 한단 말이에요. 선물 사러가요. 지금.”

20분간 울고 불며 졸라댔던 나의 어리광은 결국 훈계와 함께 회초리를 몇 대 맞고 나서야 끝났다.

다음날, 나는 어제 미리 써두었던 감사편지와 엄마가 아침 일찍 사다 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학교를 가야만 했다. 이미 선생님 책상에는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들이 한가득 이었고 내가 가져온 선물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날 결국 선생님께 준비한 편지와 카네이션을 드리지 못했다. 학교가 끝나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왔고 점심도 거른 채, 방문을 닫고 울기만 했다. 옆 반 반장 광현이처럼 멋진 선물을 선생님께 드렸다면 지금보다 나를 더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무 것도 드리지 못했기에 이제 선생님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올다 어느새 잠들었던 나는 그래도 준비했던 편지를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쓰였다. 저녁을 대충 먹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에 옮겼다. 평소 선생님께서 내 일기를 보고 자세하게 답글을 써주셨던 터라 이 날 일기는 더욱 자세하게 썼고,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강조해서 넣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께 예쁜 화장품과 꽃다발을 꼭 사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그림 쿠폰’도 그려 넣었다.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게라도 일기를 쓰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다 나갔을 때, 나는 준비했던 일기와 함께 어제 드리지 못했던 편지와 카네이션을 드리고 도망치듯 뛰어나왔다. 다음날 일기검사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다시 일기를 돌려주셨을 때,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쓰

셨는지는 너무 궁금했지만, 학교에서 볼 용기가 없어서 집에 오자자마 일기를 열어보았다.

「철민이가 스승의 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나보구나. 일기를 읽으면서 선생님 마음이 많이 짠했단다. 선생님이 비밀하나만 말해줄까? 아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선생님이 다 집으로 돌려보냈단다. 선생님한테는 그런 선물보다 철민이가 준 것처럼 카네이션 한 송이에 특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은 철민이 마음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단다. 선생님한테 미안할 필요 없고 오히려 선생님이 고마운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철민아.

추신: 철민이가 쓴 그림 쿠폰은 나중에 어른 되면 그 때는 선생님이 꼭 받을게.]」

분명 어린 나이의 나였지만 안도감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는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그 후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스승의 날이 되면 나는 늘 어김없이 편지 한 통과 카네이션 한 송이를 준비하여 담임선생님께 드렸다. 그리고 '선물은 따로 안 드려?'고 묻는 친구가 있으면 웃으면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때 4학년 꼬맹이였던 내가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몇 해나 스승의 날을 겪었지만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미리 아이들에게 말한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나요?”

“네. 스승의 날이요.”

“그래요. 내일은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뇌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뇌물은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담은 편지를 말하는 거랍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니까 선생님께 뇌물을 주고 싶다면 편지를 써서 가져오면 선생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다. 먹을 것이라면 과자 몇 봉지를 더 사서 과자파티를 하고, 카네이션은 화분에 넣어서 교탁 위에 올려놓고는 한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이 되는 기분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나에게 뇌물(?)을 받고도 마음이 따뜻해 질 수 있는 가치관을 알려주신 선생님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사는 것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교직의 청렴한 가치관을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벚꽃 흐드러진 날에

조 정임

벚꽃이 만개했다. 내가 사는 동네 근교에 유명한 벚꽃 명소가 있기에 해마다 봄이 되면 어느 상춘객들처럼 꼭 한 번씩은 벚꽃을 즐기곤 한다. 주말이면 방구들과 연애라도 하듯 드러누워서 도통 움직이려 하지 않는 남편을, 지난 주 내내 채근하여 올 해에도 겨우 나들이를 계획할 수 있었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 나무라듯 일으켜 세웠다. 꽃놀이에 신난 건 나 혼자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가족나들이가 성사된 것이다.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꽃놀이는 공원으로 진입하는 길에서부터 완전히 형클어졌다. 햇살이 투명해지자 연분홍 벚꽃은 가지런히 쏟아지는 봄 햇살과 눈이 맞아 밀회를 나누었고, 벚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여인네처럼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원으로 진입하려는 차들로 인하여 도로가 많이 붐볐다. 때문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한참을 기다려도 줄지어 서 있는 차량이 워낙 많다보니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다음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그 사이를 교묘하게 '끼어들기' 하는 차량이 생겨났다. 하나 둘 그러다보니 차는 도로에서 실타래마냥 마구 엉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 신호는 초록불로 바뀌었고, 한 대의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다른 차를 들이박아 버려서 이중 삼중으로 차가 부딪쳐서 도로는 순식간에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육두문자를 섞은 욕까지 내뱉으며 짜증을 부렸고, 아이들은 제 아빠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갓길로 빠져 새치기를 하라고 부추겼다.

10여 년 전 그때도 그랬다. 그날은 오늘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느긋하지는 않았다. 약속시간이 다가오면서 마음은 급해지고 길은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나의 업무를 사랑했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뛰어났다. 주변의 상사는 물론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승진 심사에서는 번번이 누락되었다. 승진 심사가 있을 때 마다 기대는 늘 실망으로 바뀌었고, 풀이 죽어있는 나에게 어떤 선배가 은밀히 불러 조언을 해주었다.

‘그 분’께 성의 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승진 할 때가 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분께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배의 말은 능력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투였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가정마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일에 매진해왔고 그런 편법을 쓰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그런 제안은 나에게 한없이 절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료들에 비해 승진이 자꾸 늦어지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까짓 자존심이 뭐대수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며 설득했다. 때마침 승진 심사를 앞두고 그 분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신다고 했다. 그 분 생일의 결혼식이 우리 동네 벚꽃 명소에 있는 모 호텔에서 있다고 했다. 나에게 조언을 해 준 선배를 통해 그 날 그곳으로 가서 찾아뵙겠다고 언질을 드렸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내 석연치 않아 불안했다. 한편 그런 결정을 한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탐탁지 않았다.

도대체 그 놈의 성의라는 것은 왜 꼭 이렇게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일까? 나 자신을 납득시키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나는 두 눈 딱 감고 남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우리 동네의 특산물인 빵을 사고 그 안에 봉투를 끼워 넣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나는 그 분을 만나기 위해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내키지 않는 불편한 행보를 알기라도 하는지 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사방이 꼭 막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하는 수 없이 갓길로 차를 몰아 암체같이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차에 부딪쳐 접촉사고가 나버렸다. 안 그래도 주차장 같은 도로는 내가 낸 사고 때문에 완전 마비가 되어버렸다. 차에서 내려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다. 그렇게 사고 수습을 하고 나니 약속시간은 이미 한 시간이 훌쩍 더 지난 후였다. 교

통경찰이 도착하여 도로를 완전 소통시킬 때까지 거의 한 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나는 도로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때 중간에서 가고 역할을 해 준 선배가 어떻게 된 일이나고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 그 분은 기다리다 화를 내며 돌아갔다고 선배는 나를 책망했다. 미주알고주알 상황을 설명해보려 했지만 너무 늦은 일이었다. 찌그러진 차는 그 날의 나처럼 구겨진 채 견인차에 매달려 정비공장으로 가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가로에 혼자 남겨졌다. 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내 기분은 영 엉망이었다. 앞으로 어떡해야 하나 하는 걱정보다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굴해보여 헛웃음이 나왔다. 영문을 알 리 없는 벚꽃만 내 머리위로 그 고운 꽃잎을紛紛이 흩날리고 있었다.

문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암체 같은 끼어들기였다.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암체같이 끼어들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승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어졌던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나 역시 그들처럼 끼어들기를 하려했다.

그 결과는 사고였다. 내가 그동안 상처를 받고 결국은 비굴한 선택에 괴로워했으면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운이 좋게 성공했다면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정의롭게 살고 있는 많은 동료나 후배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을 것이다. 그날 나는 목적했던 성의 표시를 못했고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어진 승진 심사에서 보기 좋게 또 물을 먹고 말았다. 당연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그 분이 야속하기도 했다. 약속시간에 도착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린 만개한 벚꽃도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날 사고 난 내 차 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뒤편에 버려진 자동차에 탄 사람들에게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소중한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 날 내가 그 분께 성의 표시를 하고 인사 청탁을 했다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비난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

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나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약삭빠른 나의 처세술만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그 분은 이런 저런 불미스런 일로 공직을 떠났고 한동안 그 분이 한 일과 그 분과 얽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었지만 나는 그 해 봄 유난히 화려했던 벚꽃 덕분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동료들과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며 잘 살고 있으니까.

한 10년 훌쩍 거슬러 올라가 옛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만 가득한 아이들에게 나는 한마디 던졌다.

“저 차들이 억지로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도 안 났을 것이고 그랬으면 우리 모두 지금쯤은 저 벚꽃나무 아래서 꽃놀이를 하고 있겠지?”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린다.

그래도 나는 우리 동네 벚꽃이 참 좋다. 해마다 벚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은 막히는 도로와 넘치는 인파에 짜증을 내곤 하지만 나는 그것들에 감사한다. 그 흐드러진 벚꽃 덕분에 나는 지금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날 내가 순조롭게 그 분을 만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덕분에 내가 승진을 했다면 나는 여전히 이 벚꽃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정당하게 내 순서를 기다리는 여유보다는 또 끼어들기를 시도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지금 내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인산인해를 이룬 벚꽃 명소에는 가는 곳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암체 족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대한다.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는 세상

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참 잘 한 선택

유 은경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집안 사정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막내는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인데, 늘어난 빚으로 예쁜 옷 하나 마련해주는 것도 벅찼다. 큰 애는 낮이면 커피숍 아르바이트에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취업 준비를 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대학 생활의 꽃은 방학 아르바이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

작은 애는 씹씹하게 아침을 먹고 새벽부터 종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스물 넷에 남편을 만나 순박한 매력에 빠져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한 후, 쉰 넷이 될 때까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에게 바깥일은 막연한 두려움 그 자체였다.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데,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들에게 너무도 미안했다. 이제는 자신들도 성인이라며 괜찮다고 하지만, 한창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싶을 나이에 가정 형편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부모로서 제대로 된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대론 안 되겠어. 애들, 남편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하자!’ 이렇게 시작된 나의 장년 취업기는 쉽지만은 않았다. 나이도 이미 쉰이 넘은데다가, 나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선택들은 청소, 주방일 뿐이었다. 사실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지만, 허리가 일찍이 좋지 않아 조금만 무리해도 병원을 전전해야했던 까닭에, 장시간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일들은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주방 일들을 지원해 보았지만 경력이 없던 탓인지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다. ‘맞아, 나같이 평생 전업 주부로 살아온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설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애들이랑 남편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야.’라고 씩씩히 단념을 해나가던 찰나에, 마지막 희망으로 지원한 집 근처의 국공립어린이집 급식 보조 일에 운이 좋게도 합격되었다.

평소 아기들을 예뻐하고 조카들도 간간히 봐주었던 터라 이곳에 취직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의 합격 소식에 날아갈 듯이 기뻐했다. ‘그래,

나도 이제 우리 가족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거야! 남편도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라고 못 할게 뭐람? 열심히, 감사히 일해 보자!'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식단 재료가 배달이 되는데, 내가 맡은 일은 영양성분이 제일 잘 배합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한 구청의 어린이집 식단을 토대로 영아들을 위한 점심과 간식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세 살, 네 살배기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더욱 더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말이면 집에서 미리 식단을 혼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원래라면 9시까지 출근을 하면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잘 먹이고 싶은 마음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요리를 준비하곤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몸은 조금 고단해도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사르르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으로 배달된 재료의 양이 평소와 달리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다. 특히 소고기의 양이 유달리 적어 보였다. 이후 며칠 동안의 재료 역시도 원래의 배달되어야할 양보다 조금씩 부족해 보였다.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누가 훔쳐가나?'

며칠 간, 지속되는 부족한 재료의 양에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마침내, 배달 시각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출근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출근한 다음 날 새벽, 어린이집에서 나는 뜻밖의 인물을 보았다. 원장님이 배달된 재료들의 1/3 정도를 다른 봉투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원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나는 황급히 달려가 원장님께 물었다.

"어머, 선생님, 일찍 나오셨네요. 반찬들이 항상 남아서 재료를 미리 조금 가져가려고 했어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원장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식 정량이 배달되어오는 건데,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면 되나요?"

나는 화들짝 놀라 되물었다. 그러자 원장님은
"그렇죠, 그렇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다 먹지도 못 하는데, 선생님도 조금
들고 가요. 다들 그렇게 해요."
라며 오히려 나에게 설득하는 것이었다.
나는 원장님의 너무도 당연하다는 태도에 되려,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
지, 다들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
다.

다음 날이 되자, 원장님은 더욱 당당하게 일정량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나
역시 고민되기도 했다. 세 살배기 아이들이 다수인 우리 어린이집에선 많은
양의 반찬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실로 컸던 것이다. 게다가, 내 두 딸들을 생각하면 더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맛있는 반찬 하나 제대로 챙겨준 기억이 없었
기에 이런 마음 한 편이 미안함은 특히 떡볶이, 돈가스 혹은 갈비탕같이 딸
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단으로 나올 때에 더욱 커졌다. '그래, 어차피 남
으면 음식물 쓰레기인데, 집에 조금 들고 간다고 해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니
고.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 틀림없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배
달되어지는 재료들은 그곳에 등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특별히
정부에서 80%를 지원해준다고 들었다. 그렇게 지원받은 급식비를 통해 들
어오는 식재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금횡령과 다름없어 보였다. '원
장님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신고해야하나? 그런데 신고하게
되면, 내 직장은? 해고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딸들한테 용돈
이라도 줘야지. 한 번만 눈감아 보자,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돼.'라며 내
양심의 소리를 애써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은 며칠 째 가시지 않았고, 그 와중에 나는 원장님의
또 다른 불법 행위들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제공
받은 어린이집의 교재와 교구를 본인의 손녀를 위해 상습적으로 빼돌렸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다. 물론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다. 또한 우리 어린이집의 천사 같은 아이들도 그만큼 소중했다. 어쨌건 원장님이 빼돌린 식재료와 교구와 교재만큼, 아이들은 더 먹을 수 있음에도 덜 먹고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더 낮은 교육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또 '선생님,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맡기러 오는 수줍은 새댁의 진심이 담긴 아침 인사는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을 믿고 제 분신 같은 자식들을 맡기러 오는 부모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번져갔다. 마침내, '만약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었다면,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라는 내 마음의 외침은 양심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지체할 것 없이 어린이집 원장님을 운영 비리, 보조금 부정 수령에 관한 내용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원장님이 보육 선생님들의 월급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정량까지도 꾸준히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고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돈도 벌며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던 내 인생의 첫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거지?'라는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불안감도 잠시 뿐, 신고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말은 내 양심의 선택을 다시 한 번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렇게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급식·간식의 횡령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해도, 내 자식한테 불이익이라도 갈까, 일할 때 불이익이라도 올까, 쉬쉬하는 부모, 교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같이 양심적인 분들의 신고 하나하나가 비리 없이 깨끗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래야 부모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척결하겠습니다. 참, 작년부터는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해 어린이집 공익신고 보상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선생님, 참 잘한 선택입니다.”

이 믿음직한 수사관의 작은 찬사는 나에게 뿌듯함, 그 이상의 보람을 선사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양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제도가 곳곳에 마련되어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고,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나의 신뢰도도 높여주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후에 미래의 내 딸들의 자식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 나아가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작게나마 일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특별히 어렵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의 평범한 ‘참 잘한 선택’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깨끗한 사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처세술

최 문경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 힘들다. 처세를 익혀야지.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라”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소주 한잔을 입에 털어 넣고 소주 보다 쓰디 쓴 악수를 나눈 후 헤어졌다. 그렇게 나는 해고 되었다.

원래 내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다. 법대에 입학했고 싱싱하고 반짝반짝 빛났던 청춘의 20대를 송두리째 사법시험 준비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낙방이라는 처참한 결과와 입영통지서 한 통이었다.

26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고 전역한 후 다시 세상에 던져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도서관이었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등 불안과 공포의 그늘 속에서 우리는 취업의 문을 통과하여 살아남기 위해 열을 올렸고 보이지 않은 연기들이 도서관을 가득 매웠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비루한 존재였다. 취업 필수 스펙이라는 토익점수, 학점, 대외활동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고 경험도 기술도 없는 나이 많은 취업준비생 이었다. 대한민국 어느 회사도 고시에 실패한 나이 많은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았고 매일을 울분과 좌절, 자책으로 하루하루에 가득 대었다.

그렇게 수십 번의 실패가 반복되던 어느 날, 정말 운 좋게도 죽을 힘을 다해 면접을 뚫어낼 수 있었고 나이 서른을 훌쩍 넘어 드디어 직장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높은 급여가 약속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세상에 드디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나는 감격했다. 회사에서는 나의 법 지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고 나는 앞으로의 밝은 미래와 포부를 꿈꾸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입사한 회사는 건설 컨설팅 회사였다. 건설

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법에 규정된 법적 등록기준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과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등록기준 이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이 없는 영세한 건설업자들에게 자본금을 높은 이자로 대여해주고 편법을 통해 예금거래실적을 증명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춰주고 있었던 것이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곧 업무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고민했다. 법을 준수하고 사회정의를 이루고자 했던 꿈과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다음 날 나는 사장에게 업무가 끝난 뒤 상담을 원한다고 말했고 사장과 나는 회사 근처에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의문을 모두 털어놓았고 사장은 순순히 진실을 대답해 주었다.

“불법과 편법의 차이를 아냐? 우리는 편법을 해도 불법은 하지 않아. 돈 없는 사람한테 아무 담보 없이 돈도 빌려주고 사업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뭐가 잘못 되었다는 거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냐? 이게 네가 법을 공부하며 꿈꾸던 진정한 사회정의를 실현 아냐?”

사장은 적당한 이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하고 나의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자기합리화였다. 건설법이 자본금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안정적인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건설공사를 하였을 때 부실공사와 임금미지급 등의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었다. 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법을 옹호하고 자행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회는 병들고 영혼은 파괴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은 불법보다도 위험했다.

사장의 계속되는 회유를 거부한 나는 그 자리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내가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처세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약삭빠르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는 내게 악수를 청하며 생각이 바뀌면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험난한 세상을 좀 더 살아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돌아오게 될

것 이라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며 나는 사장의 말을 곱씹었다.

처세. 사람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 정말 나는 처세가 부족한 것일까? 내일부터 나는 다시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가족들의 눈총 속에서 다시 이력서를 쓰고 합격 전화를 기다리며 울리지 않는 전화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이며 하루하루 희망고문 속에서 내 존재가치를 다시금 의심하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차 들은 쌍쌍 눈에 불을 켜고 버스를 지나쳤다. 그 불빛들이 "바보, 바보"하며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실업자의 하루하루는 훨씬 가혹했다. 스펙은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많은 나이는 어느 곳을 가도 질책의 대상이었다. 나는 이제 고작 서른을 넘겼을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서류합격 마저 힘겹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뉘 집 자식은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보내준다더라 등등 부모님의 한숨과 푸념이 시작된 것이었다. 집 안의 자랑이었고 기대주였던 내가 이전 숨기고 싶은 창피한 천덕꾸러기로 바뀌고 있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사장의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 내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그래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확신에 찬 표정으로 생각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라고 했던 것일까?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밀려와 물끄러미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숫자버튼들이 어서 나를 눌러 달라고 몸부림 쳤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나고 취업에 대해 서서히 포기하고 있을 때 짬 뜻밖의 면접통보 전화가 왔다. 좀처럼 면접기회를 잡지 못했던 내게 조금은 다른 아침이 시작되었다. 정성스럽게 양복을 다림질하고 구두도 반질반질 닦아놓았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수십 번 연습했다. 회사의 인재 상, 주요사업, 예상 질문 분석 등도 전날 완벽하게 연습하고 암기했고 면접후기 또한 꼼꼼하게 챙겨두었다. 취업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회사에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벌써부터 충성을 다짐했다. 취업만 될 수 있다면 영혼이라고 팔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면접 시작시간 보다 30분 일찍 도착하여 대기실에 착석하니 나와 같은 심정을 공유하고 있을 지원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면접이 시작되었다. 3인 1조의 그룹면접.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에게 순서대로 칼 같은 질문을 쏟아냈고 그들은 멋지게 대답했다. 그에 비해 나는 잔뜩 얼어있었다. 너무 오랜만의 면접이라 말도 더듬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다. 간신히 꾸역꾸역 질문들을 힘겹게 넘겨 갈 때 가운데 있던 면접관 한 명이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업은 원가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하나는 법과 규정을 조금 어기는 대신 회사의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로서 법과 규정을 지키는 대신 회사의 큰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책임자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방망이에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다시 한 번 양심의 시험대에 올라야 했다. 사실 별 것 아니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말하면 되니까. 회사에 선택받는 상품이 되려면 사용가치가 높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회사에 꼭 걸맞은 상품이 되어야만 한다. 시종일관 당당하고 매끄럽게 답했던 다른 두 명의 지원자들은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 회사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증진하고 손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면접관들은 고객을 꼬덕였다. 그들은 마지막 면접질문까지 완벽한 처세술을 선보였다

문제는 나의 차례였다. 머리로는 답이 정해졌지만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망설이게 되었다. 이번에는 꼭 선택받고 싶었는데...사람이란 쉽게 바뀌지 않나 보다. 회사가 마음에 들어 하는 말을 하고 운 좋게 합격한다고 쳐도 앞으로도 매 순간순간마다 양심을 속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며 타협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부끄러움이 용기를 만들었다. 나는 행복해지기로 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배기가스를 속이고 띄우지 않아야 할 배를 띄우며 독성물질이 들어간 살균제를 만들고 팔았던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단기적 이익에 집착했고 그 결과 훨씬 큰 재정적 손해와 사회적 비난을 빚어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법 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회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분명한 어조로 힘주어 말했다. 면접관들은 잠시 생각에 잠겨 보인 듯 했다. 이윽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질문을 던진 면접관이 착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나는 회사에게서 다시 한 번 선택받지 못한 불량상품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또 한 번 처세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생긴 용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싶었다. 그런데 며칠 후 나는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떨어졌다 확신했던 면접에 최종합격 한 것이었다.

기쁨과 환희에 찬 첫 출근일.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면접관을 마주쳤다. 그는 내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정직함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처세술을 익혀야 한다고.

아니.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처세와 양심은, 처세와 정직은 반대편에 있지 않다. 사장은 내가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확신한다. 인생의 고비마다 샛길을 찾는다면 반드시 방향을 잃을 것이라고. 최고의 처세술은, 최단의 지름길은 정직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썩은 복숭아 찾기

박 다정

살아가면서 항상 운이 좋았다. 로또 당첨 같은 운은 아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돌려받는다면 하는 사소한 운이 좋았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꼭 누군가가 찾아준다거나 휴대폰을 두고 왔을 경우 꼭 주위의 친구들이 챙겨주었다. 다른 종류지만 며칠 전의 일도 그랬다.

“학생. 잠깐만요.”

복숭아 한 상자를 사고 킁킁대며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과일가게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나를 불러 세웠다. 물건 값을 잘못 받아서 부른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저씨는 박스 안의 복숭아를 뒤적거리며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 썩은 거 하나를 봤었는데.....”

아저씨는 상자 구석에 가려져있던 썩은 복숭아를 멀쩡한 복숭아로 바꿔주셨다. 내가 고작 이거 때문에 힘들게 뛰어오셨냐며 묻자 아저씨는 웃으시며,

“당연히 바꿔드려야 하는 건데요.”

집으로 돌아와 먹은 복숭아는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가게에 가도 똑같은 평범한 당도의 맛이였다. 하지만 복숭아 하나, 하나가 단단하고 싱싱했다. 재밌는 것은 상자 속 복숭아 중에 아저씨가 바꿔 준 복숭아가 가장 맛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저씨와의 일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살아가면서 운이 좋았고 그런 운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엄마가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왔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는 치매 걸린 할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전담하고 계셨다. 늘 웃는 얼굴로 밝게 일하던 엄마였던지라 드디어 업무 스트레스가 폭발했구나 싶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피 섞인 가족도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들이 힘들게 했어?”

엄마는 나의 물음에도 대답이 없었다. 저녁 식사 중에 꼭 틀어놓곤 하던 텔레비전 뉴스도 틀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정적 속에서 밥을 먹었다. 식기 부딪치는 소리와 음식물 씹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에 나와 가족들은 눈치만 보다 서로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뉴스에 우리 동네 나오는 것 봤냐며 호들갑이었다. 영문을 몰라 친구에게 묻자 친구는 뉴스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치매 할머니 폭행해서 요양원 문 닫았대. 여기 우리 동네 맞잖아. 이 가게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 그치?”

설마 엄마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가슴이 철렁했다. 엄마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어제 정황을 비춰 본다면 충분히 의심이 갔다. 치매 할머니를 담당했던 엄마. 나의 질문에 아무 말 않던 엄마. 무슨 생각으로 친구와 놀았는지 모르겠다. 멍한 기분으로 친구에게 이리저리 끌려 돌아다니고 나니 집에 도착해 있었다.

현관문을 여니 엄마의 신발이 보였다. 평소보다 이른 엄마의 퇴근 귀가였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텔레비전을 보았다. 다행히 친구가 말한 치매 할머니 폭행 사건의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엄마. 혹시 그, 엄마가 말하던 치매 할머니 말이야.”

어찌된 일인지 나의 말에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응. 엄마 할머니 왜.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뭐. 엄마 요새 회사생활 어떤가 궁금해서.”

“평소랑 똑같지. 산책시켜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엄마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찡그렸다. 나도 따라 갑자기 긴장되었다.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난무했다. 할머니를 때리는 엄마. 정말로 엄마가 때린 거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엄마 편을 들어야 하나 사회의 편을 들어야 하나. 그래도 엄만데 엄마 편을 들어야 할까. 아니야, 안되지. 그럼 내가 평소에 혐오하던 연고주의랑 다를 게 뭐야. 만약에 지금 엄마가 폭력

을 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엄마의 편을 들 수 있을까.

“엄마가 어제 화났던 이유가 그거야. 아니, 요양보호사 씹이나 돼서 할머니들 밥이랑 간식을 먹는 게 어디 있어? 할머니들 돈도 가끔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 튀어나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이어지는 말은 더욱 놀라웠다.

“오늘 그 사람들한테 호되게 말하고 왔어. 지들끼리 뒤에서 씹어보라지. 창피한 게 누군데 말이야.”

엄마는 어제와 같이 씹씩거리며 말했다. 순간 엄마의 편을 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엄마를 두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나는 엄마에게 어제의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도 치매 할머니 폭행 사건 봤지?”

“응. 우리 요양원 바로 옆인데 오늘 엄청 떠들썩했어.”

“난 엄마가 어제 너무 심각해서 엄마가 그런 줄 알았어. 미안해.”

“뭐어?”

엄마는 아프지 않게 내 팔뚝을 때리며 썰쩍하게 쳐다보았다. 엄마는 그래도 너희에게 창피할 일은 절대 안 하고 산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평소에 할머니들의 성질에 지쳐 돌아오는 엄마와 땀땀인 모습이었다.

“할머니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요양보호사지. 할머니들 손으로 할머니를 때리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손을 빌려 할머니들 주머니를 제 주머니인 양 여기는 거, 그게 제일 못된 거야.”

텔레비전에서는 막 뉴스가 시작되는 참이었다. 한 정치인의 비리를 말하는 뉴스였다. 같은 요양원 직원들에 대한 엄마의 말은 계속되었다.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정치인. 저 정치인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제 주머니인 양 여기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저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국민들의 손으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은 아닐까. 내 주머니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내 손과 발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무서웠다. 엄마에게는 이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 힘으로 답을 찾고 싶다는 욕심에서였다.

엄마는 얼마 가지 않아 사직서를 쓰고 나왔다. 요양원 사람들과의 의견충돌이 좁혀지지 않은 듯 했다. 엄마는 사직서를 쓰고 나온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밝게 웃었다. 나의 대학교 학비는 어떻게든 대주겠다며 씩씩하게 얘기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오랜만에 엄마와 데이트를 하던 중 며칠 전의 그 과일가게를 지나게 되었다. 과일가게의 과일들은 모두 싱싱한 것들로만 나와 있었다. 엄마는 내가 그 가게 앞에 멈춰 서자 먹고 싶은 과일이 있는 거냐며 물었다. 그 소리에 과일가게 아저씨께서 밖으로 나왔다. 아저씨는 나를 알아보고 웃으면서 물었다.

“저번에 복숭아는 맛있게 먹었어요?”

살아가면서 항상 운이 좋았다. 로또 당첨 등의 운은 아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돌려받는다면 하는 사소한 운이 좋았다. 이제야 그 운의 근원지를 찾았다. 아니, 사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을 만나왔을 뿐이다. ‘썩은 복숭아를 찾는 사람들’을 말이다. 여전히 정치인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저지를 비리들은 무섭다. 하지만 내 주머니가 사라지고 내 손과 발이 사라지더라도 제 손으로 썩은 복숭아를 찾아줄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의 썩은 복숭아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엄마 또한 썩은 복숭아를 찾아 사람들에게 알렸다. 답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곳곳에 있다.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말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기엔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일깨워주는, 썩은 복숭아를 찾아주는 사람들 말이다.

당신도 누군가의 썩은 복숭아를 찾기를 바란다.

바나나 우유와 군밤 세 개

김 성준

열차 승무원이 되는 것은 나의 꿈이었다. 어릴 적 기차길 옆 동네에 살았던 나는 매일 기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며 자랐고, 철길 가에 서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손을 흔들고 서 있었던 적도 많았다. 그토록 동경하던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는 때는, 방학이 되어 먼 시골의 할머니 댁으로 갈 때였다. 시골의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는 덜컹거리는 비둘기호에 5~6시간씩 몸을 실어야 했지만, 고속버스와 달리 열차 안에서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칸막이가 없는 긴 의자에 조그마한 몸을 쭉 누일 수 있는 것도 내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열차 안에는 홍익회 아저씨가 망에 싸인 굴이며, 삶은 달걀이며, 그 밖에 전기구이 오징어, 밤양갱 등 각종 군것질거리가 가득 담긴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였는데 그것 또한 나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장시간 이어지는 지루한 여행으로 칭얼거리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사 주시는 카스텔라와 바나나 우유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여행을 하게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어릴 적 희망처럼 철도청에 입사하여 철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입사하여 맨 처음 한 일은 개표와 매표였으나 철도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표 업무 이후 넓은 역 구내에서 기관차, 객차, 화차에 매달려 열차를 조성하는 업무도 담당하였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열차 차장 시험에 응시하여 어릴 적 꿈이었던 열차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열차승무원으로 발령 받았을 무렵은 KTX 열차가 아직 일부 구간만 개통되어 있어 손님들이 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던 때였다.

열차 승무원으로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추석연휴 기간은 열차를 이용하려는 손님들로 대만원을 이루는데, 특히 연휴 시작일과 마지막 날은 귀성, 귀경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된다. 나는 추석연휴 기간 내내 열차를 타며 승무를 계속하였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부산발 서울행 낮 시간대 무궁화호 열차 승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추

석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어 아쉬움은 컸지만 추석연휴를 즐겁게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무사히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승무를 하였다.

무궁화호 열차는 보통 객차 7량으로 운행되지만, 그 날은 추석 연휴의 귀경 인파를 감안하여 객차가 9량으로 증결되어 승강장에서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결에도 불구하고 연휴 마지막 날 넘치는 귀경인파로 인해 열차 안은 부산역 출발부터 이미 입석 손님들로 넘쳐났고, 다음 정차역인 구포역 이후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다.

딱딱 들어찬 객실 안을 비집듯이 순회하면서 승차권 검표, 객실 내 적정 온도 조절, 화장실 청결유지, 그 밖에 손님들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며 다니다 보니 열차는 어느새 대구역을 지나 왜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관역에 도착할 무렵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화장실을 점검 중인 나를 불러 세웠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쭙봤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다. 잠시 망설이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이윽고 “저...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건네셨다.

하지만 그 날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로 입석 승차권마저 동이 날 지경인지라 남아 있는 좌석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표정에 대고 차마 좌석이 없다고 바로 거절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내가 그냥 부탁하는 것은 아니고...이거 얼마 안 되지만 꼭 좀 부탁하네.” 라며 내 손에 꼬깃꼬깃한 오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르신께서는 오늘 같은 날 좌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딘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꼭 앉고 싶으신 건가? 혹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서 돈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신 건가?’ 그 짧은 순간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돈을 건네주시는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씀드렸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정말 좌석이 없습니다. 요즘은 승차권이 모두 전산 처

리되고 있어 저희가 좌석을 빼놓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자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뒷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역시나 하는 체념한 표정이었지만

“그런가요? 그래도 혹시 자리가 생기거든 꼭 좀.....”

하고 말끝을 흐리시며 재차 부탁을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앉으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추석연휴 마지막 날의 콩나물시루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좌석은 정말 구해지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에서처럼 누군가 선뜻 좌석을 양보해 줄 가능성도 없어

“글쎄요, 설령 누군가가 승차권을 반환하여 빈 좌석이 생긴다고 해도 역에서 줄 선 사람들에게 바로 판매돼버려 구해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원역이나 영등포역쯤 가면 좌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린 뒤 다른 곳으로 가려 할 때였다.

할아버지의 뒤쪽 통로 벽에 초등학교 1~2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기대고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등지고 걸어가는 내 귀에 아이의 투정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우리 자리 없어? 나 발 아프단 말이야. 이잉~ 할아버지 괜히 따라왔어.” 그 소리에 나는 멍칫하며 할아버지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께서는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손자를 데리고 가시는 듯했다. 처연히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가에 언뜻 물기가 비친 것도 같았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며 어린 시절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님께 칭얼대며 떼를 쓰던 내 모습이 오버랩 되어 떠올랐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뒤돌아서서 할아버지께 정중히 말씀드렸다. “어르신, 보시다시피 오늘은 좌석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어린 손자를 달랬다.

“아저씨가 자리가 있는지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줄래? 할아버지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 같구나.”

내 말에 찔끔 커다란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를 보며 혹시 반환되는 승차권이 있는지 휴대용 단말기로 조회해 보았지만 역시 좌석은 없었다.

난감하던 찰나 갑자기 방송실이 떠올랐다. 무궁화호 열차는 보통 7량 객차 편성에 방송실은 3호차에 위치하고 있다. 방송실은 운행 중 각종 안내 및 정차 방송을 하는 공간으로 여객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는 장소다. 그런데 이날은 객차가 9량 편성되어 있고, 8호차에 사용하지 않는 방송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었다. 8호차 방송실은 임시 객차이다 보니 방송 기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로로 긴 승무원용 의자만 1개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어르신, 사용하지 않는 방송실이 마침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앉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하지만 그 곳은...”

하며 할아버지께서는 의아해 하셨다.

“괜찮습니다. 거기는 사용하지 않는 방송실이니까요. 제가 8호차로 먼저 가 있을 테니 손자를 데리고 8호차 방송실로 오세요.”

라고 말씀드린 뒤 8호차 방송실 쪽으로 향했다. 8호차 방송실은 외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에 입석 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잠시 후 뒤따라온 할아버지와 손자를 빈 방송실 공간에 앉혀드린 후

“어르신,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방송실이지만, 다른 입석 고객들 이목이 있으니 안에서 문을 잠가 주시고 되도록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방송실 문을 닫았다.

마지막 칸인 9호차 쪽으로 순회를 한 바퀴 도는 길에, 마침 통로를 지나는데 홍익회 판매 카트가 보여 바나나 우유 2개를 샀다. 돌아오는 길에 8호차 방송실 문을 두드린 후 안을 살펴보니 손자는 이미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꿀아 떨어져 있었다.

“어르신, 이거 별 거 아니지만 손자분과 같이 드세요.”

라고 말씀드린 뒤 바로 문을 닫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보고 뭔가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으나 다시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의 표정으로 보아 감사의 인사라도 하실 것 같았지만, 그런 일에 인사를 받는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곤히 잠든 손자가 깰지

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바쁜 업무로 두 사람을 다시 마주치진 못했다. 열차가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한 후 내리지 못한 손님은 없는지, 두고 내린 물건은 없는지 종착 순회를 하던 중 8호차 방송실 문을 열어 보았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미 어디에서 내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방송실 의자 위에는 반으로 접혀있는 하얀 종이와 그 위에 은박지로 싸여진 조그만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접혀 있는 하얀 종이를 펴 보니 -오래되어 내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손자가 쓴 듯 뺄뺄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꺾꺾 눌러쓴 글씨로 '아저씨 바나나 우유 맛있었어요. 저도 커서 기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은박지로 싸여진 덩어리에는 조그마한 군밤 세 개가 담겨 있었다. 그 날 서울 승무원 숙소로 향하는 길에 여객전무님과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열차 안에서 뒷돈을 주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고 했다. 아마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에게 돈을 건넨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 같은 일을 겪지 못했지만 그 때 그 꼬마의 편지와 군밤은 아직도 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때 할아버지가 건네는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비록 조그만 액수이긴 하나 부정수입의 유혹을 물리친 부끄러움 없는 철도인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할아버지께서는 철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내는 계기를, 어린 손자에게는 아름다운 기차 여행의 추억을 가지게 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백만 원이 적다면 백만 원 더!

신 승열

2005년 여름이었다.

나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기동대에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발령을 받았다. 전혀 희망하지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부서로의 발령이라 당혹스러웠지만 '경찰생활 동안 경험이 되리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차곡차곡 배워나갔다.

그 당시는 24시간 근무에 48시간을 쉬는 방식이었는데, 실제로는 당일 접수한 음주·무면허 건에 대해서는 송치서류를 모두 만들고 퇴근해야 했던 관계로 밤을 꼬박 새우고도 다음날 점심때나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3년간 근무하며 힘든 기억도 많았고, 뺑소니범을 잡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고마운 기억도 있지만,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경험도 더러 있었다. 그 유혹의 기억들 중에는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나가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 건네주려 했던 모범택시 운전자, 사건을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며 봉투에 상품권을 두툼하게 담아 건네던 회사원, 음주운전을 봐 달라며 꼬깃꼬깃 접은 돈을 슬며시 건네던 술 취한 어르신 등이 있지만 가장 기억나는 것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겪었던 일이다.

그날은 유난히도 교통사고가 많아 정신이 없었던 날로 기억된다. 바쁜 점심식사를 막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지구대 경찰관들이 무면허 운전자를 붙잡아 사무실로 데려왔다. 20대 초반의 그 남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하루만 더 참았으면 정지기간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다.

담당 조사관으로서도 참 아쉽고 딱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위로를 건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팔에 гип스를 한 운전자의 친구가 찾아왔다. 방문한 친구의 사연인즉, 자신이 그 차량의 차주인데 팔을 다쳐 운전이 곤란한 관계로 정지기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했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는 것이었다.

조사 내내 보달라며 음소하던 그 젊은 차주는 조사관의 강경한 태도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바깥으로 나갔다가 조사가 끝날 즈음 음료수 1박스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마음만 받겠다며 한사코 사양했지만 울먹거리며 음료수라도 드시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받아두었다.

그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지 약 10분 쯤 지나 팀원들과 음료수를 나눠 먹기 위해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음료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하얗고 두툼한 돈 봉투가 함께 들어 있었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100만원은 족히 되어 보였다.

돈 봉투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한참 동안 신호가 가도 받지 않기를 여러 번, 네 번째 전화를 걸고 나서야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젊은 친구가 이게 뭐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봐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몇 번을 말했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가 나왔고, 상대방의 주눅이 든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뇌물공여죄로 입건하기 전에.”라는 말로 통화를 마쳤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한 시간 쯤 지났을까? 그 젊은 차주는 깃스를 하지 않은 팔에 스포츠 신문을 든 모습으로 사무실로 들어왔다. 생각 같아서는 욕을 한바가지 퍼부어 주고 싶었지만 곧 군대 입대를 한다며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니 다독여 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 돈을 받고 무면허 운전을 눈감아 준다면 나는 파면 될 것이고, 다른 경찰관이 다시 그 사건을 무면허운전으로 조사할 것이다. 그 경찰관이 돈을 받고 파면 되면 또 다른 경찰관이 당신 친구를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하게 될 것이니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일이라며 차분히 다독였다.

돈 봉투를 도로 건네주고 대화가 끝날 때 쯤 그 친구가 들고 들어온 스포츠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좋아하는 연재만화가 있던 신문이라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봐도 되느냐?”라는 말과 함께 신문을 들고 펼치는데 하얗고 두툼한 돈 봉투가 떨어졌다.

분명히 그 친구 손에는 내게서 돌려받은 돈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신문 속에 또 다른 돈 봉투를 감춰 들고 왔던 것이다. 이쯤 되자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이 친구야, 이걸 또 뭐여~”라고 물어보니 100만원이 너무 적어서 경찰관이 다시 불렀다고 생각하고 급히 100만원을 추가로 더 구해왔다는 것이다.

젊은 차주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10일 뒤에 군에 입대했는데, 입대 전까지 친절하게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는 내용, 운전면허가 취소된 친구와도 화해를 잘 했다는 내용 등으로 연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상품권을 건네려 했던 회사원은 5년이 지나서까지 명절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모범택시 운전기사와 술 취한 어르신께도 참 훌륭한 경찰관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런 기억들을 뒤로하고 경찰 근무 10년 만에 서울을 떠나 아내의 고향인 충청북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시간도 벌써 8년이 되어가지만 유혹의 환경에 노출된 경험은 물론, 유혹을 당당히 거절한 에피소드조차 없이 근무를 이어오고 있다. 청주권 지구대에 근무 할 때는 정말 친절하게 처리해 주어 고맙다며 들고 온 음료수까지 설득해서 돌려보내느라 오히려 그 분들의 반감을 사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는 과거의 기억이 크게 작용한다. 부패인식지수 조사를 할 때도 '경찰관이 아직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긍정을 하면서도 막상 '최근 일정기간 동안 직접 뇌물을 건네 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이를 부정하는 응답률이 현저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시각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직사회에 한 방울의 검정물이라도 튀면 이를 희석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재차 명심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흔히들, 부패는 돈과 연관 지어서만 정의하려 한다. 하지만 그 공식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다. 금전과 관련된 부패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월급을 받고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인사 발령 시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 청탁하는 것 등이 부패 개념의 중심이 되었다.

「젊은 경찰관이어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18년 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도착했을 때 정문 옆 조경석에 새겨진 글자였다. 얼굴에 주름은 늘었지만 청렴에 관한 의지

는 해가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다는 긍지, 그 '긍지'는 비단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재물보다도 값지고 귀하다.

잊지 못할 물 한 모금

김 봉수

“신고합니다! 소방사 김봉수는 2010년 10월 21일부로 OO소방서 OO 119 안전센터 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방관입니다. 2010년 10월 21일은 제가 처음 소방공무원으로서 제복을 입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소방관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서툴거나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보인 저에게도 소방서에서의 업무는 그 강도와 책임이 너무나도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있어 똑같은 매뉴얼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표준작전절차라는 지침은 존재함). 같은 교통사고 구조 출동을 나가더라도 사고 장소, 차량의 충돌방향, 운전자의 신체조건이나 부상부위 하다못해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현장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끔찍하고 처참한 현장, 현장 상황에 맞는 처치 방법을 익히는 것, 누군가의 목숨과 직결되는 일들이기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심리적 부담감들은 당시 소방관으로서의 첫발걸음을 내딛은 저에게 매우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햇병아리 소방공무원인 제가 좌충우돌 할 적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 11월. 부쩍 쌀쌀해진 초겨울 날씨의 어느 날, 소담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저희 팀원들은 재래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119 Fire Road Day’라는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위해 관내에 소재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대원들은 홍보방송을 틀고 시장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며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과 화재예방을 위한 행동들에 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한참 홍보활동을 하는 중 우리는 한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곳

에서는 여러 가지 잡화와 일회용품등을 팔고 있었는데, 일행을 지휘하시던 팀장님이 다짜고짜 그 가게로 들어가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가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슬그머니 따라가서 들으니 팀장님께서 “지금 선생님 가게에는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를 내뿜게 되는 상품들이 많고, 가게 내부의 진열장 배치가 복잡하여 연기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었을 때 대피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상가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는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화재감지기도 노후되어 화재발생시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고장·파손된 소방시설을 수리 및 보수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장은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현재 수리·보수할 돈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봉투를 팀장님 손에 억지로 쥐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은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조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계고하였고, 꼭 수리를 하겠다는 가게 주인의 약속을 받은 후 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며칠 뒤 관계법령과 자인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 다시 한 번 그 가게를 방문하였고 다행스럽게도 가게의 소방시설들은 모두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 팀이 야간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시곗바늘이 자정을 넘어가는 그때, 정적을 깨며 출동방송 지령이 들렸습니다.

“왜애애애앵, 화재출동! 화재출동” “조대 화재출동입니다. 장소 OO동 XX-XX번지 화염과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 인명피해 우려, 신속출동해 주기 바람!!”

정신이 확 들며 순식간에 제 심장은 쿵쿵쿵쿵 요동치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화재출동은 있었지만 단순한 소각이나 잡목, 창고 화재가 대부분이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화재출동은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방차에 탑승한 후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왜 그렇게 방화복 지퍼는 올라가지 않는지, 공기호흡기 끈은 왜 얼른 보이지 않는지.....한참을 허둥대고 있을 때 소방차는 벌써 현장에 도착해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장소에는 지금이 대낮인가 싶을 정도로 새빨간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릴 듯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화재장소는 불과 며칠 전 'Fire Road Day' 캠페인 때 팀장님이 소방시설을 지적하였던 바로 그 상가였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훈련받았던 대로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헉헉 거리며 현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현장과의 거리가 20m에서 15m, 10m 앞까지 다가오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열기가 제 몸을 덮쳤습니다. 열과 화염을 막는 방화복을 입고 헬멧, 장갑, 장화까지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녹아내리게 할 것 같은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으며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때 앞에 계신 팀장님께서 외쳤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뒤에 딱 붙어." 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며 우리는 화마(火魔)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뜨거운 열도 열이지만 시커먼 연기는 제 앞을 단 10cm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無)의 공간에서, 시각은 차단되었지만 촉각(뜨거운 열기)과 청각(부서지고 무너지는 소리)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앞에 계신 팀장님과 저는 호스를 꼭 잡고 내부를 향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 때 바로 머리 위에서 우당탕하며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열기가 우리 쪽을 덮쳤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는 순간에도 팀장님께서 신속하게 방수(防水)하여 화마를 잡고 계셨습니다. 그 때 건물 천장에 뿌려진 소방용수는 다시 우리 몸에 뿌려졌고 방화복 사이로 소방용수가 스며들었습니다. "앗 뜨거!" 차가운 소방용수가 마치 끓인 물처럼 뜨겁

게 달궈져 제 몸에 끼어들었습니다. 현장은 화염과 연기, 뜨거운 수증기와 내부 잔해들로 아수라장과 같았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센터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탰고 제 눈에 그들은 영웅들로 보였습니다.

대원들의 신속한 진화작업으로 불길은 점차 사그라졌고, 큰불을 잡은 우리 대원들은 남은 잔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남은 잔화(殘火)들은 동료들에게 맡기고 잠시 나가서 숨 좀 돌리자고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안면에 쓰고 있던 면체를 벗으니 너무나도 시원한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간은 이미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니 얼굴은 그을음투성이였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팀장님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소방관님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소방시설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저와 제 가족들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가게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라며 우리들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소방관이라는 자부심과 뿌듯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 때 옆에서 팀장님께서 “너도 이제 진정한 소방관이다.”라고 웃으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낡은 바가지에 물을 한잔 떠 주셨습니다.

그 낡은 바가지에 담겨있던 시원한 물 한잔은 아마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한 모금의 물맛이 될 것입니다.

황금어장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양 호민

작년 여름 때의 일이다. 갓 일경이라는 계급을 달았던 나는 교통관리계 업무 지원 지시를 받았다. 일경 급 대원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가서 업무 지원을 하는 것은 당시 우리 경찰서 의경부대의 관례였기 때문에, 타부서 파견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

하지만 그 부서가 교통관리계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막막했다. 업무 지원을 나가는 부서 중 외근 업무를 주로 하는 교통관리계는 당시 의경들의 기피 부서였을 뿐만 아니라, 하필 내가 근무할 시기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나 하며 시간을 보낼 줄로만 알았던 나는 그 결정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휘요원께 다른 대원들로 대체가 안 되겠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막내가 당돌하게 그런 말을 하면 괜히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교통관리계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교통관리계 업무는 처음에는 무난한 듯했다. 교통관리계에 처음 간 날, 교통단속 업무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들으니 그리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교통단속 업무는 말 그대로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였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의외로 간단해 보여 나는 안도할 수 있었다. 내가 앞으로 단속할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방심하며 미소를 보였던 나에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단속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주로 단속근무를 하게 될 거다. 우리가 근무할 곳은 물건을 옮기는 트레일러들이 주로 다니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신호를 너무 안 지키거든. 위에서 운전자들보고 빨리 짐을 나르라고 지시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 엇그제 크게 사고도 났어.”

그러곤 얼마 전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고의 현장 사진을 함께 보여주었다. 그 사고 현장에는 충돌한 두 대의 트레일러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트레일러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 트레일러와 충돌한 모양이었다.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트레일러의 앞부분은 종잇장처럼 납작해져있었다. 그런 차들이 교통 단속하는 내 옆을 뺑뺑 달릴 것이라 생각하니, 잠시 전까지만 해도 미소를 머금었던 입가는 파르르 떨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근무지역 으로 나섰던 나는 눈앞에 펼쳐진 신항 도로의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로에는 온통 트레일러밖에 없었고, 그 큰 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호를 무시하며 도로를 누비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가다 순찰차 크기의 승용차가 큰 트레일러와 함께 달리게 될 때면 그 모습은 마치 '큰 입 베스'와 이에 위협받는 '토종 물고기'를 연상케 했다. 금방이라도 승용차를 집어 삼킬 듯 하는 트레일러의 질주는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와 직원은 서둘러 단속을 시작했다. 그리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와 색깔의 정보가 내 무전기에 들려왔다.

"(빠리리리), 8**4, 8**4, 흰색 트레일러, 신호위반"

나는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수고하십니다. OO경찰서 일경 양호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OO번 신호대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약간 긴장했었지만, 운전기사는 순순히 절차에 응해주었다. 서명을 받은 나는 다음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재빨리 통고서를 발부해 그에게 건넸다.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벌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첫 단속으로 뿌듯해하던 나에게 갑자기 욕이 들려왔다. 바로 단속을 당한 그 운전자였다.

"야이, XX놈아. 누가 이걸로 끊으래. 넌 집에 XX도 없냐? 아 XX, 열 받네."

당황한 나는 통고서를 다시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리둥절한 채 왜 욕을 하시냐고 물어보니,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해있는 그는 일진이 사납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에도 몇몇 차량을 단속하면서 위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고, 나는 그때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차례 욕을 먹어야만 했다. '개념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욕을 먹으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였다.

'교통단속을 하는데 내가 융통성을 보이는 게 가능한가? 단속된 사람을 위반내용에 맞게 처리하는 게 내 일의 전부인데...'

2시간 정도의 단속 후, 쉬는 시간이 되자 나는 직원 한 분께 여쭙보았다.

"주임님, 저는 어제 배운 대로 절차에 맞게 단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게 욕을 한마디씩 하고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에게 세상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듯한 말투로 내게 말을 해주었다.

이유는 이랬다. 해당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되는 차량들은 대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으로, 트레일러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벌점 누적은 자신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고, 7만원이라는 범칙금 역시 그들에게는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왔던 터라, 이전에 이를 단속했던 경찰들은 벌점이 없고 범칙금 액수가 적은 위반 항목으로 단속된 것처럼 격하처리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관행을 알 리가 없었던 나는 원칙대로 그들을 단속 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융통성이 없는 의경이라며 욕을 했던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욕을 먹은 이유와 함께 왜 옛날부터 이 지역이 몇몇 경찰들에게 황금어장이라고 불렸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될 경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이 되어도,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위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반하는 차량이 줄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실적을 쉽게 쌓을 수 있었던 이 지역이 일부 경찰들에게 '황금

어장'이라고 불린 것이다. 처음 격하처리를 할 때는 그들을 위한 선심성 행위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본인들에게도 실적을 쉽게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좋고 좋은 것이었겠지만, 나는 이를 경찰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분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단속해 해당 지역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찰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느새 이 지역을 편안히 실적을 쌓고 갈 수 있는 곳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경찰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의 위반 내용을 격하처리 할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격하처리를 요구하며 덧댄 논리(예를 들면, 위에서 계속 시간압박을 하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제동거리가 길어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했다. 위에서 시간압박을 한다고 해서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내던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제동거리가 긴 트레일러의 경우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춰 천천히 주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말이다.

하지만 이런 행태를 이 지역의 관례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찰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몇몇 트레일러 기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사무실에서 본 이곳에서의 끔찍한 트레일러 사고도 그런 잘못된 의식만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한낱 의경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욕을 먹으며 위반된 내역에 맞게 냉정히 단속을 시작했다. 그 때문인지 내가 교통관리계에 배치 받고 난 후 우리 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는 악성 민원전화도 많이 걸려왔다. 물론 관할 구청에도 그랬을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황금어장을 망치기로 한 내 결심을 굽힐 수 없었다. 이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아들인 운전자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웃는 것을 소망했기에 열심히 그들과 씨름했다.

그리고 끝내 현실은 바뀌었다. 사고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었다. 마스크에도 거론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단속카메라가 해당 지역 곳곳에 설치된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나를 비롯한 몇몇 경찰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누가 이런 나의 고생을 알아준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은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내가 바른 사람이어서 그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과거의 신행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회가 건강해질 수도, 병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직분에 벗어난 행동이라면 그만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게 바로 내가 지난여름, 황금어장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 말이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양심

윤 태인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터졌다기보다는 이전부터 무너졌어야 할 독의 틈을 할머니의 손가락으로 간신히 메우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빠지자마자 균열이 거대해진 것이다.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던 논밭은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땅을 두고 큰 고모와 둘째 고모, 독일에 살고 계시는 막내 고모까지 한소리를 내기 시작하셨다.

“시골 땅 나눠야지. 난 도장 못 찍어줘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우리 집에서 5년 넘게 모시는 동안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연락조차 우리 집에서 먼저 해야 간신히 받던 둘째 고모가 장례식이 끝나고 건넌 첫마디였다. 땅이 뭔지, 명이가 뭔지 전혀 관심 없던 스무 살 무렵의 나는 어린 마음에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땅이 어떻게 될지 보다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할머니가 중얼거리시던 게 생각나서였다.

“나 좀 데려가라...나 좀 데려가라...”

는 할머니의 독백이, 딸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도 없는 며느리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금쪽같은 손주들 고생시키고 있다는 당신의 죄책감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였다. 서른이 되기 전 남편을 잃고, 동네 큰 양반집 고명딸에서 자식 넷을 건사하는 농사꾼이 되기까지의 고단한 삶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는 옛말은 무심하게도 할머니에게 해당되는 거였는지,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 후 10여 년 만에 생때같은 자식 둘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신과 너무도 닮아가는 며느리의 삶이 안타까운 마음에 할머니의 며느리 사랑은 남달랐고, 주변에서도 며느리만큼은 나라님 부럽지 않게 잘 났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할 정도였다. 치매에 걸리셔서 먹을 것을 이것저것 숨겨두던 그 가물거리는 순간에서조차 며느리가 들어오면 숨긴 음식을 쥐어주곤 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시골에 있는 땅은 며느리에게 물려주어야 할 마지막 재산이었고 자식들을 키워낸 젖줄이자 한평생을 몸 바쳐 지켜낸 당신의 자존심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땅을 떠나면 타지로, 심지어 타국으로까지 떠나서 길게는 몇 십 년을 찾아오지도 않던 딸들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뻔 했던 땅 나누기는 할머니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하나 뿐인 올케의 삶을 또한 걱정했던 큰 고모의 정리로 일단락되었다. 할머니는 당연히 며느리와 아빠 없이 잘 자라준 손주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으니 그게 맞다고, 그 논밭에 대해서 앞으로 한마디라도 더 나온다면, 할머니의 뜻으로 매년 보내던 쌀 세 가마니까지 다신 못 받게 될 줄 알라고 큰 고모가 으름장을 놓으셨더니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둘째 고모도 기세를 접고 쌀은 꼬박꼬박 보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입을 다му셨다.

엄마의 완강한 뜻으로 명이는 오빠와 내 앞으로 분배되었다. 언젠가 결국은 명이가 바뀔 거고 그때 상속세라든지 하는 세금도 복잡하고 굳이 당신의 명의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셨다. 그렇게 땅은 서울에 있는 오빠와 내 소유가 되었으나, 문제는 논밭의 운용이었다.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시골에 사시는 친척아저씨께 농사를 맡겼는데 명의를 바꾸고 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아빠와 어릴 적 형, 아우하면서 지내시던 면장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였다.

“나중에 논 팔고 하려면 자식들이 농사짓는 걸로 서류를 해서 직불제를 받아요. 형수 혼자 사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큰 돈 쓸 일 생기지 않겠수. 직불제 신청해두면 지원금도 일 년에 얼마씩 나오고, 몇 년 농사짓다가 파는 걸로 하면 양도세도 면제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도 서울에 살던 집이 재개발로 분담금을 크게 내야 할 상황이었

고, 오빠의 결혼식도 앞둔 상황이라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할 상황이던 엄마에겐 솔깃한 얘기였다. 큰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했던가. 그 와중에 난 갑작스런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엄마는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궁지에 몰려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시긴 하셨지만, 그 외에 평생 법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던 엄마에게 시골 면장님의 '도움'은 선악과와도 같은 달콤한 이야기였을 테다.

“그래도 그거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다들 아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정 걱정되면 나중에 양도세 이득 얻는 셈 치고 도지하는 사람한테 직불제는 좀 떼어주고 확인 나오면 주말마다 와서 짓는다고 말 맞춰 달라 하면 되지.”

면장님의 말씀으로는 많이들 그렇게 한다는 거였다. 구석진 시골에 남은 사람은 노인네들뿐이고 결국 자식들에게 갈 논밭이니, 미리 자식들이 농사 짓는 걸로 해두고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방식이라 농촌 사람들은 꽤 쓸쓸하게 쓰고 있는 듯싶었다.

얘기를 들은 엄마와 난 각자의 고민에 빠졌다. 엄마는 ‘지금 취업준비를 하며 아프기까지 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을 더 보태줄 수 있다면’하는 마음이셨고, 난 엄마한테 생활비를 보태드리지도 못하는 현재의 삶이 속상해서 엄마에게 소소한 수입이 되었으면 했다.

우리의 깊어지는 고민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고 엄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면 법의 시야를 피해가는 지원과 세금에 대해 엄마는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으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재개발 공사는 가차 없이 시작되었고 이주금을 나눠 오빠는 신혼집으로, 엄마와 난 지하셋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하나 뿐인 아들, 그리고 남편 없이 키워낸 장남의 신혼집만은 늘 번듯하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주금의 거의 전부가 오빠의 결혼자금으로 쓰이게 되었고 우리 공사가 끝날 때까지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아마 그때였을 거다. 엄마는 결국 남들이 다 한다는 그 직불제, 우리가 농사짓는 걸로 해두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나 또한 엄마의 뜻에 따르기로 생

각했고, 바로 또 다른 명의자인 오빠에게 몇 년 조심하면서 잘 지내다가 땅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 쓰자고 얘기해두려던 바로 그 날이었다.

“엄마, 이제 할머니 될 거예요. 축하드려요. 넌 이제 고모다, 고모.”

새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오빠의 전화였다. 얼떨떨하면서도 첫 손주를 얻게 되었다는 행복에 가득 찬 엄마는, 그때 마치 할머니가 정신 차리라고 불호령을 내리시는 기분이었다고 하셨다. 재물로 땀땀거리는 울창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는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쪽 같은 할머니였다. 그런 할머니를 존경했고 사랑했던 엄마는 어긋난 생각과 결심을 한 자체를 부끄러워하셨다. 오빠에게 직불제를 신청하자고 권하려던 우리는 그런 고민은 했었다고 말했고, 다시는 편하게 옳은 길 아닌 길로 돌아서 갈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엄마는 행여나 할머니가 힘들게 지켜내신 땅 바르지 못하게 쓸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당부해두셨다.

오빠는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면서 그동안 엄마가 짊어온 가정의 무게를 절실하게 느낀다고 했다. 엄마가 고민하신 것 또한 결국 엄마 당신이 부유한 삶 누리려는 게 아니라 자식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던 거 다 안다며, 엄마 걱정하지 않게 남부럽지 않은 가정 꾸려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의 고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난, 순간의 판단으로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릴 뻔한 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앞으로의 삶에서 두고두고 반면교사의 일로 기억해두겠다 다짐했다.

옳은 길은 가끔 깊은 골짜기도 있고 비바람도 몰아치면서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할 거냐고 사람을 시험한다. 그에 반해 바르지 못한 길은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듯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훨씬 수월해 보일 때가 있다.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떳떳할 것인지 아닌지, 부귀영화를 얻은 후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결정인 것이다. 그때의 고민과 결정으로 인해 엄마는 손주들에게 당당하고 인자한 할머니가 되셨고 난 조카들의 눈을 바라보며 정직을 설명할 수 있는 고모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오빠는 내집마련대출을 받아 신나게 뛰노는 두 아들을 위해 아파트 1층의 집주인이 되었다. 엄마는 정 힘들면 시골 땅을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도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지켜낸 땅인데 그런 사연 많은 땅은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애깃거리 들려주면서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의 우리가 그 땅으로 인해 마음 든든하게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큰 힘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 오빠를 뿌듯해하시며 엄마는 가끔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소리 내서 말씀하시곤 한다.

“어머니, 그래도 며느리복이랑 손주복은 있으시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 요섭

자전적인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힘 들어간 글은 쓰고 싶지 않았다.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른 짧은 가방끈을 생각하면 그런 글을 쓸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청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재(財)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에 재의 추구가 청렴의 결여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언젠가 읽었던 책을 다시 집어 들어보기도 했지만 결국 글의 물꼬를 트는 것은 어린 날의 나와 아버지를 추억하는 데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야, 저기 ‘사팔이’ 지나간다.”

“눈 봐라. 완전 징그럽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나는 꽤 유명한 녀석이었다. 동네 떠돌이 개라든가, 동네 바보 형이라든가 하는 그 정도 존재가 갖는 인지도는 있었던 것 같다. 4, 5살 무렵 내게 갑자기 찾아온 사시는 상태가 아주 심해 검은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오른쪽 눈만 그렇다 보니 정상인 왼쪽에 비해 더욱 대비되어 보였고 결국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자기네들과 다른 ‘사팔이’에게 친구가 돼줄 아이는 없었다.

아이들이 어린 탓에 나를 따돌렸으리라 생각하며 이제는 혼자만의 용서를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들의 시선이 더 미웠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면 내 눈이 주는 이질감에 수십의 시선이 닿곤 했다.

“아줌마, 애 눈이 왜 그래요?”

어느 어른들은 기어코 그 이질감에 의문을 터트렸었다. 배려 없는 질문이 지하철 안을 정적으로 만들 때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없이 옆 칸으로 가곤 하셨다. 이런 일들이 나를 애 같지 않은 애로 만들지 않았나 싶다. 시선폭격에 시달렸던 나는 무관심을 갈망했었다. 언젠가 수업시간에 방관도 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차라리 방관이 낫다며 어린 냉소를 보냈던 기억은 지금도 서글프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돼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던 나와 달리 아이들은 구슬치기로 바꿨다. 대결에서 제 것을 잃어 안타까워하는 녀석의 탄식이 뒷자리에서 들려올 때면 나는 그것조차도 부러웠다. 그 탄식을 내는 것에도 대결에 낄 자격이 필요했으니까. 그 자격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토록 무관심을 원했으면서 참 모순되게도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다. 외로웠다.

언젠가 놀이의 형태가 구슬치기에서 팽이치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방영되던 팽이대결 만화의 영향이었다. 구슬이야 500원으로도 한 꾸러미를 살 수 있는 것이었지만 플라스틱 소재의 팽이는 초등생에게 제법 고가의 물건이었다. 만화에 폭 빠졌었던 나는 어머니를 졸라 기어코 팽이를 손에 쥐었다. 문방구에 있던 팽이 중 제일 크고 화려한 것이었는데 며칠 집에서만 가지고 놀다 하루는 학교에 가져가 보았다. 아마도 그날이었을 거다. 아이들이 날 부르는 호칭이 '사팔이'가 아니라 '요섭이'가 되었던 게. 기분 좋았다. 관심은 꽤나 달달한 것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아이의 조름이란 부모에게 꽤 치명적인 것인지 며칠 안 되어 나와 같은 팽이를 하나 둘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고 팽이가 흔해질 때쯤 자연스레 나는 사팔이로 회귀했다. 재(財)가 관심으로 전환되는 순간의 달콤함을 이미 맛 봐버린 내가 다시 혼자만의 학교생활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기존의 팽이를 뛰어넘는 '개정판'의 팽이가 출시되었다.

더 커진 크기에, 다양한 색, 튼튼해 보이는 플라스틱 외관까지. 다시 관심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 제격이다 싶었다. 하지만 지난번 팽이를 사주셨을 때 어머니는 이미 한 번의 한계를 허용하셨기에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던 와중, 문득 떠오른 내 아버지의 지갑. 늘 같은 자리에 있던 그것.

나의 아버지는 "그 집 아저씨 사람 참 괜찮더라."라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주 언급되던 분이다. 경찰공무원이신 아버지는 늘 정갈한 분이셨다. 휴일에도 평일과 일어나는 시간은 같았고, 늘 세수를 말끔히 하고 신문을 보던 분이다. 그런 성정만큼 당신의 지갑도 늘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책상 위에 두곤 하셨다. 그걸 보고는 어리고 겁 없는 계산들이 바빠 흘러갔던

것 같다.

‘지폐 한 장쯤 없어져도 알지 못하실 거야. 만일 걸린다 해도 때리진 않으실 거야. 내 체벌은 항상 엄마가 하셨잖아? 엄마가 때리는 건 견딜 만해.’

놀이터로 간다는 핑계와 함께 집을 나와 곧장 문방구로 갔고 결국 나의 범행은 실행됐다. 지폐와 바꾼 팽이는 내 손에서 늠름함을 뽐내고 있었고 나는 다시 한 번 사팔이에서 요섭이로 불릴 순간을 기대하며 죄책감을 잠시 잊었던 것 같다.

뿌듯한 감상을 끝낸 후, 경찰 아버지의 도둑 아들이 되었다는 현실에 되돌아오자 무서울 법한데도 제법 침착하게 추가 범행을 이어갔다. 팽이는 소화전에 잘 은닉하여 어설픈 증거인멸을 했고, 거스름돈은 주머니에 넣어 손으로 째 집으로 돌아갔다.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감추려는 어린 도둑의 치밀함이었다. 게다가 팽이도 우리 층이 아닌 몇 층 아랫집의 소화전에 감추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초범치고 보통은 아니었다 싶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드디어 집 현관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단 한 마디도 없이 나를 맞으셨다. 무언가 다른 집안의 공기에 떨리는 심정으로 신발을 벗는데 뒤쪽에서 아버지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섭이 왔냐. 이리 와봐라.”

지갑이 있던 그 방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나는 천천히 방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동전이 내는 소리를 막으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지갑 네가 손댔냐?”

“.....”

이미 다 알고 계신 물음이었다. 그 순간 밖에 계시던 어머니가 방문을 조용히 닫으셨고 방안에 아버지와 나만 남게 되자 주머니에 넣은 손을 더욱 꽉 쥐게 되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미 꿰뚫어보셨을 테지만 아버지는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고, 실망이 크실 법한데도 손찌검은커녕 자식에게 새끼나 놈이란 말도 쓰지 않는 존중을 보이셨다.

“대답해봐라. 지갑 네가 손댄 거냐?”

“그게 사실은.....”

그 강한 부드러움에 결국 나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소화전에서 다시 뺑이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체벌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이 이어졌다.

“이 뺑이, 네 용돈으로 산 거였으면 혼 안 냈을 거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네 자유야. 근데 돈 쓰는 게 떼떽하려면 그 돈 자체가 떼떽한 돈이어야 한다.”

“.....”

“방에 들어왔을 때 네 모습 좀 생각해봐라. 인정은 안에서 먼저 받는 거다. 밖에서 뺑이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도 결국 집안에선 손이 주머니로 숨는데 얼마나 떼떽하지 못하냐? 다신 그러지 말아라.”

지폐가 뺑이로, 뺑이가 관심으로 전환되던 그 달콤함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내게 며칠 집안일을 부여하셨고, 서툰 솜씨로 떼떽한 지폐만큼의 일을 치렀다. 그러자 서랍 안에 있던 뺑이가 내 손에 주어졌고 그제야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주머니 안에 숨어 움츠러들었던 손이, 이제는 집 안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뺑이를 가지고 놀게 된 것이다.

인터넷뉴스 사회면은 공직자, 기업가의 온갖 비리, 횡령, 탈세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평생 쓰고도 남을 부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도 어린 날의 나처럼 재(財)가 주는 전환의 달콤함에 빠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형태와 크기는 다를지라도 분명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안정감과 사회적 인정 등이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사람이 살아가며 쌓는 ‘탐’에서, 가장 아래에 있지만 가장 큰 기저를 이루는 것은 바로 남 앞에 떼떽할 수 있는 ‘인성’임을.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브라질의 국민적 영웅이나 다른 없던 전 대통령 룰라는 비리 사건이 훗날 터지며 결국 추락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관(官)과 기업을 감시할 시민의

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크고 작은 비리들이 관행이 되어 버렸고 자체정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 관행들은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그 고리를 끊는 것에 있어 지금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리로 점철된 한보철강 부도가 일어나 나라가 뒤흔들렸던 1997년,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스물이 되었다. 그 아이들이 청년의 이름으로 쌓아갈 하나하나의 탑들이 모두 합쳐져, 그것이 곧 나라의 기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청년의 범주에는 나 또한 속해 있다.

팽이를 갖고 싶어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던 사팔이 소년은 사시 콤플렉스와 따돌림으로 고교 자퇴라는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수회에 걸친 수술을 통해 오른쪽 눈의 외관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지만 시력은 이미 오래 전 죽어버려 살릴 수 없는 상태다.

비록 세상의 반은 보지 못할지라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른 일을 천직으로 삼고자 다짐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였고 낙방과 재도전 끝에 올해 필기합격이 유력한 점수를 확보하여 면접 준비 중에 있다. 그와 함께 아버지는 내년 정년을 앞두고 계신다. 아버지의 끝과 가까운 지점 어딘가에 내 출발선이 있다는 비애가 못내 사무친다.

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하며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져야 했을 때 그리고 이른 결혼으로 책임질 사람이 하나 더 늘었을 때 그 책임감의 버거움에 숨가빠하곤 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셨을지. 외벌이에, 아픈 엄마, 아들 둘. 거기다 한 녀석은 외눈박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원칙을 지키고 오직 주어진 것만을 받으며 사는 삶이 버겁진 않으셨을지.

“너랑 너희 형은 순도 백 프로짜리 쌀 먹고 컸다. 그거 다 정직한 쌀이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범인 잡아도 서로 바로 안 가고 여관에 수갑 채워놓고 같이 자고 그랬어. 그렇게 버티다 그 범인 잡는 경찰 앞으로 특진 포상 공고되면 그제야 서에 가서 범인 넘기고 특진 받고 그러던 시절이다. 그래도 난 안 그랬어.”

언젠가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다. 아버지는 뚝뚝하고 또 뚝뚝한 탑을 쌓

아오고 계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쌓아올리신 그 탑에 나는 아들로써 자랑스럽게 청렴(淸廉)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합격하여 임용이 된다면 나 또한 공직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평생 청렴하겠다는 각오가 언젠가 흔들릴 시기는 분명 올 테지만 그때,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을 기억하며 마음을 붙잡을 것이다.

집을 나와 얻은 내 월세 단칸방의 식구가 내년이면 셋이 된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나 또한 갖게 된 것이다. 젊은 날 아버지도 흔들리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며 버티셨을 거다.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 재(財)의 추구하고 전환은 떳떳한 외양을 갖춘 채 가족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곧 청렴이 실현되는 한 모습 아닐까. 가족 앞에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어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2016/06/22 수



그간 수고많았고.. 면접합격기원..

혹 탈락하더라도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다시 도전하길..
합격하여 임용될시 늘
봉사하는마음갖도록..
개인의 영위란 처자식
책임질정도면 충분.
욕심 갖지말도록..
떳떳한 공직생활 기원하며 아버지
2대째 공직 이어준다면 아버지
몹시 기쁘게 생각
부정 저지르지 않아 밥 술 뜨며
마음 편히 지낼수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버지 공직생활 37년중 가장
큰수확은
아들이 공직 이어가려고 하는 것
수고 많았어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양심은 우리를 지킨다

최 효선

나에게는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다. 어렸을 때, 동생은 한없이 미운 존재였다. 이 미움은 내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아들이 아니네.”

엄마 배에서 막 나온 아기가 눈을 뜨지도 못한 채 들었던 소리다. 그 후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던 어른들의 사랑은 동생에 대한 무의식적인 미움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한창 차별이라고 느꼈을 시절엔 도서관에서 내 이야기 같은 동화를 읽으며 엉엉 울었다. 나는 동생보다 공부 잘했고, 상을 더 많이 받았고, 흔한 사고 한번 치지 않았다. 이 모든 결과가 동생과의 경쟁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의식했을 것이다. 어린 날의 스러지는 기억이 있다. 사소한 다툼이 번져 빗바랜 벽지가 뜯어지도록 싸웠던 날, 동생을 때리던 손끝에는 내 나름의 서러움이 묻어있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던 우리는 아침에나 생사를 확인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한 발짝 떨어지니 다툼 일도 없었다. 동생과의 경쟁보다 사회에서 살아남는 일이 더 치열하고 중요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대학생이 된 동생은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난생 처음 보는 짧은 머리를 하고선 안절부절 못했다. 입대하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당일이 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앞에서 울어야하나 웃어야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내 일을 했다. 그날도 난 시험기간이라 바빴고 ‘어차피 나중에 보겠지’라는 생각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동생은 “잘 지내라.”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나도 분명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너무 커서 쉽게 나오질 못했던 것 같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성인이 되고 깨달은 많은 것들 중 하나이다. 군대에 있는 동생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벌써?’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나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따르릉’ 평소라면 차단시켰을

이상한 번호로 온 전화에 모든 가족이 달려들어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이 빠진 낮은 소리였다.

“엄마, 나 지루성 두피염이 심해져서 잠을 못 자겠어. 코도 막혀서 숨을 잘 쉬지 못 쉬겠어. 의무대 갔더니 축농증이라면서 알약을 잔뜩 줬는데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공병대 배치 받았는데 폭발물제거반이 되었어. 다음 주에는 실물 지뢰를 만져. 위험 할 수도 있다는데 잘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잠이 안 와서 전화했어.”

“자대는 화천이야. 면회 올 거지? 최전방이라 GOP 근무 할 거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우리 집은 초상집이 되었다. 고생 한번 안 시키고 키운 아들 걱정에 부모님은 아무 일도 못 하셨다. 평소에 감기 한번 안 걸리던 녀석이 앓는 소리를 하자, 모든 게 잘못될 거 같았다. 더욱이 간간히 걸려오는 전화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나라도 군대를 다녀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변에 물어 볼 곳도 없었다. 밖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니! 그렇게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군대인데 우리 집에만 생긴 비극인 것 같아 답답했다. 이런 내 걱정을 들은 친구가 한소리를 했다.

“그거 뺄 수 있을걸? 내가 아는 친구도 이번에 최전방 배치됐거든? 흔히들 아는 악명 높은 곳이었대. 왜 요즘 거기서 폭탄사고 나고 그랬잖아.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인맥이 닿아서 그 친구를 빼줬대. 개 그래서 지금은 후방에서 근무한다던데.”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다들 그러는데 뭐, 동생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군복무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깐’

때마침 동생과 같은 곳으로 배치되었던 동기도 힘을 써서 다른 곳으로 가

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던 부모님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전화기를 드셨다. 퇴직을 앞둔 군인, 대기업 이사, 군부대 행정 공무원 등등. 전화기가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이 간절히 붙드신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작아보였다.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공정하게 살아 보겠다던 나도 밤마다 수능 발표 때처럼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함이 닿기를. '동생이 안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누군가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아픈 모습의 동생이 꿈에 나왔다. 꿈에서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동생을 바라만보고 있었다. 괜스레 걱정이 되는 나날이었다.

며칠 뒤 부모님은 동생의 군번이 어떻게 되냐는 전화를 받으셨다.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자 기분이 이상했다. 마음 속 누군가가 동생은 괜찮아질 것이니 남들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확실히 기쁘지 않았고 씁쓸했다. 부모님도 머뭇거리시더니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잠깐 생각을 하던 동생은 밝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내가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누군가는 여기 있어야 하는 거잖아. 이왕 군인이 된 거 그 역할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어? 어휴, 이렇게 빠져 나간다고 생각해봐.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내 스스로도 그건 싫어. 주변에 그런 일 보면서 나도 생각해봤는데 피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게 정당한 방법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잖아. 여기는 부잣집 아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때 우리가 다 같이 안전할 수 있는 거지. 나 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군인인데 뭘 못하겠어."

"근데 괜히 엄마, 아빠 걱정 끼쳐 드린 것 같아 미안하네. 나 많이 나아졌어. 동기들도 좋고 선임들도 좋아. 훈련이 고되긴 하지만 지낼만 해. 모두들 잘 지내지?"

생각보다 충격적인 통화였다. 그리고 행복한 통화였다.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에게 피해주는 일, 스스로 부끄러운 일 한번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부모님에게 그 동안의 전화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조차도 그걸 막을 용기는 없었다. 그 대신 부모님을 꼭 닮은 동생이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지킨 양심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항상 어렸던 동생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진짜 군인이 되었다. 물론 춥고 험악한 곳에서 고생은 하겠지만 정신만은 누구보다 건강하기에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동생의 시간을 알리는 '벌써'가 몇 번 반복된 지금, 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생은 '인기짱'이 되어 있다. 6.25때 무전병이셨던 할아버지처럼, 부대 내 무전병 역할까지 도맡아 한다며 자랑하는 요놈은 많이 개선된 군대 시스템과 안전에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장을 달리는 일이 가장 힘들다는 동생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한 것 같아 보인다. 다행히 귀한 아들의 무사에 우리 집도 평화로워졌다. 지난시간을 되돌아보면 공정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지킨 양심이 나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야겠다.

더불어 동생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동안 느꼈던 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칠칠맞게 숙제를 놓고 온 날에 우리 반 교실 앞에 서있던 동생, 부모님이 외출하신 날이면 엄마 몰래 같이 치킨을 나눠먹던 동생, 아무리 싸워도 자고일어나 함께 운동하러 다니던 동생이었다. 내가 문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아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서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내 기도는 이루어진 것 같다. 동생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고 지금도 멋진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동생이 돌아온다면 '네가 지킨 많은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

이름을 들추고 들추었더니 그 안에 청렴한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이 경미

바랜 빛깔로 해묵은 세월이 가늠이 되는 한 장의 상장.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이미지로 인해 터무니없이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있는 어떤 수상 보도로 인해 대중은 녹아들고, 자격 없이 거품으로 인기 물이를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며 속내가 거북할 즈음이었다.

그 즈음의 내 정서가...그런 즈음에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눈물나는 기억을 품고 있는 내 남편의 상장 한 장은 흔들리던 내 정서를 참으로 축축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묻어두었던 그 해 기억의 시간들이 날 지탱하고 있었기에 쉽지 않은 세월 속에서 세간의 엄친아와 엄친딸로 불리는 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묵은 기억으로 인한 축축함은, 상장에 박힌 1998년 그 해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했다.

결혼과 함께 스물다섯 해를 한결 같은 얼굴로 동고동락 해온 내 남편은 천성적으로 약거나 껴가 많은 사람이 못 되는 데다 참으로 반듯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그의 첫 직장은 당시에 검은 속내가 많이 숨겨있는 회사라 남편은 참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졸 공채 직원을 처음 모집했던 해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인 남편은 전공과 무관하게 그저 자기 관할 구역의 안전 점검 시설을 검사하러 다니는 일을 했었다. 취업 당시 품었던 야망과 달리 두세 시면 퇴근을 해 집에 돌아오던 남편은 시간도 여유로웠고, 설명이 곤란했을 넉넉한 경제력이 있었음에도 직장 생활을 참으로 버거워 했다.

이유는 관례 때문이었다. 당시엔 안전 점검은 요식 행위일 뿐, 각 업소마다 봉투를 만들어 찢어 주던 시절이었다. 시설 안전 점검 요소들 자체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항목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던 문제점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시설 안전 점검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게 만들었던 뒷돈이 공공연한 관례였던 시절이었

다. 점검을 하러 가면 점검 받을 준비 대신 준비되어 있던 것이 흰 봉투였고, 개중에는 어려운 업소들도 있어 남편은 그 관례를 버거워 했다.

하지만 그 관례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용기가 없고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길들여진 업소 사장들이 봉투를 거부하면 더 큰 봉투를 바라는 줄 알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저 관례대로 순응하는 게 서로가 편한,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렵게 들어가고 어렵게 공부해 나온 대학 졸업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다가 양심이 허락지 않은 봉투까지 걸려있으니, 남편은 줄곧 직장을 그만둘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과거의 모든 뒷돈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감시가 되었고, 관례가 무너지게 되면서 남편도 그럭저럭 회사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원에서 학업을 잇던 남편에게 새로 생긴 연구소로 옮길 기회가 주어졌고, 남편은 연구하는 일을 너무도 즐겼다.

그러던 중 한 도시에서 사고 신고가 들어왔다. 누설로 인한 사고이긴 했지만 인명 피해도 없었고, 아주 작은 사고라 그저 대충 보고해서 상황을 종료 시켜도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니었다. 회사의 분위기도 그랬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남편은 가스 사고라는 게 조심하고 예방을 하면 얼마든지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서 반드시 누설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로 남편은 누설 신고 접수가 들어온 플라스틱 배관의 lot number(가스관을 만든 날짜, 사람, 설비, 재료 등을 기록한 번호)를 찾아내어 검사를 시작했다. 외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설의 원인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 남편은 오랜 시간 누설의 원인을 찾는 일에 몰두를 했다. 심지어 대학교의 연구실들을 빌려 아예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검사와 조사를 했다.

나는 그 때 둘째 아이를 임신해 입덧이 심한 상태라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을 때였고 큰 애는 방치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다. 회사에서도 '원인 불명'으로 처리하길 은근 바라는 눈치가 느껴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냈을 경우 그 원인이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어설플 경우 후 처리도 그렇고 가스관을 생산한 회사의 손해도 그렇고 복잡할 것이 눈에 뻔한 데다가, 큰 사고도 아니라 주목하고 있는 눈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덮어버리는 게 오히려 조용하겠다는 생각이었던 듯싶다.

하지만 보이지도 짐작도 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느라 며칠 만에 파리에 젖어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내 안의 아이가, 그리고 자라고 있는 큰 아이가 아빠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만큼 올곧은 성품이 자랑스럽기까지 했기에 인내하며 격려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남편은 원인을, 그것도 아주 정확한 원인을 찾아냈다. 원래 플라스틱 가스배관은 플라스틱 원재료 알갱이를 180°C에 녹여서 냉각을 해야 하는데, 260°C나 되는 높은 온도에 녹여서 냉각을 하다 보니 충격에 의한 강도가 유지가 되질 않아 크랙이 생겨 누설이 된 것이었다. 남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냈고, 회사에 보고를 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시작했다. 육덕 같은 체격의 남편이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는 몸살로 앓아누웠을 만큼 혼신을 다해 찾아낸 원인이었으나, 당시 가스관을 생산했던 D사는 회사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책임을 변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정확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가스 누설이 되었던 lot number의 가스관은 260°C에 녹여서 냉각이 된 정확한 사실' 앞에서 더 이상의 변명이나 책임 회피는 통하지 않았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남편은 같은 lot number의 가스관 수거를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일대에 묻혀있거나 판매가 된, 같은 lot number의 가스관 전부가 수거됐고 폐기되었다. 회사의 손해가 두려워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에 대한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던 가스관 제조사는 남편의 완벽한 조사 보고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와 사과를 표했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받은 상이 바로 남편의 이름이 박힌 , 지금은 빛바랜 상이다. 남편이 상을 받아오던 날, 나는 임신 7개월 짜였고 다섯 살짜리 꼬마 큰 아들과 함께 우린 작은 가족 파티를 했었다. 보도가 되지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아주 행복하게 말이다.

그때 만약 남편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썩은 양심을 가지고 '원인 불명'이라 처리를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난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들릴 때면 그 때의 남편을 습관처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우리 집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는 남편의 해묵은 상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면, 이 상에 감추어진 남편의 탐욕이나 야망이 아닌 '바른 양심과 정직한 성품이 일구어 낸 수고'를 알기에 난 그 상이 말할 수 없이 보배롭게 느껴진다.

해가 여러 번 바뀌면서, 남편도 여러 사연으로 이직을 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핵심 기술자로서 지나온 분야 마다 제대로 된 자취를 남긴 남편이지만, 그 울곤은 성품으로 불이익이 없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난 보여지는 것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품 같은 인생보다, 그리 단단한 보석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남편의 청렴한 삶이 만들어 낸 인생을 내 아이들에게 교육했고, 아이들 또한 아빠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거품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엔, 그 '이름' 앞에 <청렴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름을 들추고 들추었더니 그 안에 '청렴한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나의 이름이길 소망하며 숨을 고른다.

다 가진 남자

김 려중

“어떻게 지냈어? 언제 술 한 잔 해야지?”

한 때 둘도 없는 사이였으나, 고교 졸업 후 10년이나 연락이 없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학창시절 낮 두껍기로 유명했던 녀석이었기에, 전화 한 통으로 시간을 접으며 달려온 그의 살가움을 유난스럽다고 느끼지 못했다. 동창회 주소록에서 내 연락처를 발견했다던 그는, 마침 내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 볼 일이 있으니 퇴근 후 술이나 한 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다. 순수하던 시절의 친구를 만날 생각에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소주 서너 잔이 오가고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 몇 토막을 나누자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시간의 벽은 금세 허물어졌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친구는 졸업 후 몇 년 간 수십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작년부터 아버지 사업을 돕는 중이라고 했다.

“나도 너 같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부모님한테 땀땀했을 텐데 말이야.”

친구가 술기운에 불과해진 얼굴로 푸념하자, 내 어깨는 슬며시 으쓱해졌다. 끝 모르고 이어지는 불경기 탓인지, 안정성이 담보된 공공기관의 직원인 나는 종종 주변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식의 부러움을 사곤 했다. 그럼에도,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5년이 넘자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원인모를 매너리즘이 내 일상을 채우고 있던 터였다.

“어차피 직장생활이야 다 똑같지 뭐. 힘들긴 해도 너처럼 사업하는 친구들은 꿈이 있잖아.”

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푸념을 이어갔다. 다목적 면장갑을 생산하는 아버지의 공장에 첫 출근 할 때만 해도 의욕이 넘쳤지만, 납품처인 대기업의 횡포,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와 매출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일들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너무 힘겹다는 것이었다. 특히 외상으로 제품을 가져간 후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나날이 계속되자,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일어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친구는 고개를 숙여 허영게 드러난 정수리를 내보이며 말했다.
“머리카락 다 빠지기 전에 장가는 가야할 텐데. 아침!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진작 들었어. 못 가서 미안하고. 늦었지만 축하한다.”
“괜찮아. 난 결혼 안한 네가 훨씬 부럽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다, 지옥!”
“그러냐. 하하하.”

학창시절, 공부도, 운동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늘 부러움을 샀던 녀석의 칭찬 타이었을까. 그 날 나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자리를 옮겨 마신 술이 과했는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즈음에서야 우리는 술집을 나왔다. 친구는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라며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넸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는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

“여보!”
다음날 아침 아내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나를 깨웠다. 게슴츠레한 눈을 부비고 일어나 바라본 아내의 양 손에는 어젯밤 친구가 건넨 종이 가방과 10만 원 권 수표 몇 장이 들려있었다. 나는 얼른 손을 내밀어 돈을 빼앗은 뒤, 허리춤에 감추며 말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야.”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핑계로 수표의 정체를 둘러댔지만, 평소 돈을 남편보다 더 반겼던 아내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출근 후 나는 그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젯밤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었지만 달리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별거 아니야 인마. 어제 술값 네가 냈잖아. 오늘 어디 가서 해장이나 해.”
“어디서 파는 해장국이 30만원씩이나 하냐. 그리고 2차는 네가 냈잖아.”
“같이 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그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또 통화하자.”

녀석은 급히 전화를 끊었고 나는 몇 차례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씹씹이가 일반 직장인들과는 차원

이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내가 술값을 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친구로부터 다시 전화가 온 것은 일주일쯤 후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한 한편 불안한 그들을 드리우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수십 번 생각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의 부탁은 간단했다. 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채무자들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언제 공장을 닫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 회사의 전산망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당시는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이었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전이었다. 공공기관의 말단직원인 나는, 청탁은 남의 나라 이야기 속에서나 존재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물건 값을 치르지 않아 공장직원 수십 명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권리는 없다는 식의 어설픈 정의감도 가졌던 듯하다.

나는 거리낌 없이 회사 전산망에 친구가 부탁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입력했고, 채무자들의 주소, 전화번호, 근무이력 등을 힘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휴대 전화로 문자를 넣어 주말에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수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서 친구와의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여보, 그 돈은 당신 옷 사는데 써도 괜찮아.”

냄비에서 국을 떠 내 앞에 내밀던 아내는 두 눈을 이쪽저쪽으로 몇 번 껌뻑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러나 공돈이 생긴 것에 대해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기뻐하지는 않았다. 내가 아는 아내답지 않았다.

★

며칠이 지나 친구와 약속했던 장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문자 하나가

왔다. 문자는 편지처럼 길었고, 아내로부터 온 것이었다.

「여보, 우리 연애시절 기억나? 당신이 취업 준비하느라 매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 시절 말이야. 당신은 늘 후줄근한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를 만났었지.

남들처럼 비싼 음식점을 간다거나 여행계획을 세우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고.

그때 당신 참 많이 원망했었지만.....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 당신은 꿈이 있었고, 나는 그런 당신을 바라보는 게 좋았거든.

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남자가 집도 한 칸 마련 못한다고 구박했었는데, 그때도 많이 속상했었지? 결혼하고도 내 친구들 들먹이면서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졸랐을 때도 그랬을 테고.

미안합니다.

그래도 난 당신이 자랑스러웠어. 돈이 좀 없으면 어때. 항상 당신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 매력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늘 사고 싶은 옷 안 사준다고 투정부리던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뭣하지만, 진심이야.

돈은 당신 지갑에 넣어 두었어. 꺼름칙한 돈으로 옷 살 바에야 당신의 몇몇한 아내로 남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문자를 읽는 동안 내 귓불은 핫핫하게 달아올랐다. 결혼 후 사회생활도 하지 않던 아내가 나보다 훨씬 생각이 깊다고 생각해서였다. 아내를 때로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 여겼던 나 자신이 한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친구와 만나 아내의 생각을 전하며 돈을 돌려주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친구는 오히려 무리한 부탁을 한 자신의 생각이 짧았노라고 말해주었다. 소

주병을 들고 씨익 웃던 친구는 내 앞에 놓인 잔을 채우며 말했다.

“좋은 직장예, 속 깊은 마누라까지! 다 가진 남자네, 넌.”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잔을 입에 털어 넣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생각했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인가에 감사했다.

부패한 당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배우세요.

유 재현

부패한 관리들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에 대한 뉴스를 볼 때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면서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다보면 나라의 미래가 생각보다 밝다는 생각에 안도하곤 한다. 눈살 찌푸리며 보는 뉴스 속의 인물들과 달리 교실에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따지며 때론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청렴한 공직자와 정직한 기업가로 자라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된다면 미래의 모습이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까? 청렴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국력이며 아이들은 그 힘을 어른들 보다 훨씬 더 온전히 지키고 있다

몇 해 전 여름방학이 끝나고 막 2학기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아침 6학년 교실은 대개 웃고 떠드는 소리로 소란하기 마련인데 이 날은 어떤 일인지 싸우는 소리가 교실 밖까지 크게 들렸다.

“왜 개수가 맞지 않는지 말해봐. 우리 반 인원수 보다 많잖아. 너희가 더 사먹은 거 아냐?”

교실 밖에서 잠시 지켜보고 있자니 반장인 민재는 회장인 재윤이와 부회장인 성재에게 따지듯 말하고 있었고, 재윤이와 성재는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한 채 곤란한 표정이 역력했다.

“영수증에 써있는 개수와 우리 반 인원수가 다르잖아. 다섯 개나 더 많이 샀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조목조목 따지는 민재의 말과 추궁 당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일의 전말이 무엇인지 대충 파악이 되었다. 아이들 경제 교육을 하면서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모은 뒤 물건들에 일정한 가격을 붙이고 판매하는 알뜰 시장을 열었었다. 이때 얻은 수익을 학급비로 하기로 했는데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한차례 더 하였더니 나름 큰돈이 모였다. 2학기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재윤이와 성재가 이 학급비를 유용해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몰려들어 그간의 일을 떠들어댔다. 지난 번 학급회의에서 체육을 하는 날에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결정했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오기로 했던 재윤이와 성재 및 함께 있었던 몇몇 아이들이 더 사먹은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장인 민재는 영수증을 내게 들이밀었다. 영수증을 보니 확실히 우리 반 아이들 수보다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더 많았다. 슬쩍 재윤이와 성재 쪽을 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학급에 공금이 생기자 나름 구색을 갖추다 고 감사로 임명해 놓은 반장이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일단 아이스크림을 연구실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이야기하고 재윤이와 성재를 데리고 나와 상황을 물었다. 역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함께 있던 몇몇 아이들과 학급비로 더 사먹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음...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먹은 아이스크림 값을 다시 돌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친구들에게 사과 할 수 있겠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돌아왔다. 함께 먹은 아이들까지 불러내니 쭈뼛거리는 아이들에게 나머지 아이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회장인 재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는 친구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며, 먹은 금액에 대해선 학급비로 돌려놓겠다는 사과를 했고 다른 아이들도 비슷비슷한 말을 하고는 하나 둘 자리로 돌아갔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고 소란도 가라앉았다.

교사에 의해 맡겨진 책임임에도 감사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수행한 반장도 대견스러웠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아이들도 기특했다. 아이들을 잠시 지켜보다 문득 이 기회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3교시 진로교육으로 예정되어있던 ‘창의적 체험 시간’을 ‘청렴 교육’으로 바꿔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교육과정을 변경하였다. 수업자료는 아침에 있었던 일로 충분했다. 우선 공금의 개념을 이해시켰다. 또, 이번 일과 같은 행동은 공금횡령이라는 큰 죄가 된다는 것과 뇌물과 청탁으로 흐려지는 사회모습 등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했다. 나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청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누도록 하였다.

평소 발표를 잘하던 회장 재윤이는 수업시간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분명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진 않았다. 그 모습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있는 어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잘못을 했지만 부끄러움을 알아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올바르게 되돌리려는 선택을 한 재윤이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한 치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낯 두꺼운 어른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청렴수업은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회장의 용기와, 부정을 찾아내어 바르게 되돌리려한 반장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되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다보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울 때가 많다.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교육을 통해 점차 완전한 존재로 자라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은 이미 어른보다도 더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보여줄 때가 많다.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과 차별하지 않는 넓은 마음, 부정과는 거리가 먼 정직한 마음은 아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남들도 다하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이나, 맡겨진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비겁한 현실인식을 갖고서 불의와 타협해 버리는 모습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고지식하다 싶을 정도로 잘못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다시 배워야 할 덕목이다.

인재 키우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한 유명 기업 총수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십 수 년 전에 했던 이 말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면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여전히 인용되는 단골 문장이다.

하지만 나에게 이 말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능력 있는 인재가 없어서 멸망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이 부패했을 때 나라가 위험해졌다.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부패에 의해 멸망한 나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지난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제국도 내부

적인 '부패'의 병증이 돌아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무너져 갔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가 그러했고, 고려와 조선이 그러했다.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교훈은 특출한 인재의 양성보다 청렴한 인재의 육성이 더 중요함을 일깨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모습을 지켜주고 어른들의 오염된 병증인 부패가 아이들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교사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소임 중 하나임을 되새기게 된다.

오늘도 여전히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기사가 신문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교실에선 불의에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을 동경하며,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줄도 아는, 그리고 청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 아이들을 보며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부패한 어른들에게 말하고 싶다.

“부패한 당신! 다시 학교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청렴한 삶의 모습, 바른 삶의 자세를 다시 배워 가세요.”

※ 글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광야의 디딤돌

서 대현

유난히도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그날도 나는 업무처리에 여념이 없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을 소개하자면 각종 고소, 고발 및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업무량이 워낙 많고 많은 민원을 대하다 보니 조직에서도 손꼽히는 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런 까닭으로 전입자는 없는데 전출자는 많다보니 부서의 평균 재직 일수가 그리 길지가 않은 곳이다. 이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살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등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2년 동안 곳곳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실 어떤 부서에서 2년을 근무했다는 것은 그리 오래 근무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부서는 전출자가 많다보니 2년째 근무를 해 온 나는 가장 '고참'에 속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고난도의 사건을 배당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80억대의 고발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되었다. 나의 업무가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고, 당사자 등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은 금액 자체가 크고, 대상 업체가 관내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해 온 터라 유난히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 그럴 때마다 늘 그랬듯이 '사건은 원칙대로 진행되니 걱정 말라.'는 식의 형식적인 말투로 응대하곤 했다. 이후 고발인 조사 등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건의 난이도 때문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사건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전화의 주요 내용은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보면 '사건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수사관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빗자루로 열심히 쓸어서 좀 더 잘 보이도록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상위 부서에서 이를 보면 단박에 알게 된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으면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사건에 임했고, 소속 팀장님도 주변에 개의치 말고 소신껏 진행하라고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휴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상사였다. 그런데 그 분은 나와는 직급 상 큰 차이가 있는, 기관장급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나와는 대면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재직 당시 나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내가 늘 고마워하고 있는 분이였다. 일단 그 분과 내가 직급 차도 많이 나고 하니, 순간 나는 그 분께서 전화를 잘못 거신 것으로 알고 받지 않았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다소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그분은 내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얼마 전 퇴직을 해서 지금은 쉬고 있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단순한 안부 전화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5분 정도 통화를 더 이어간 뒤 전화를 끊으셨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의 확장해석은 하지 않았다.

다시 사건은 진행되었으며, 피고발인 조사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후 또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다시 혼란이 왔지만 그 분은 재직 당시 누구보다도 '청렴한 공직상'을 강조하셨고, 직원들 보호에 애쓰셨던 분이었으며 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단순 궁금증 때문에 연락하셨을 것이다.' 이외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분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만나고 싶다. 점심이나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 분이 나와의 만남을 원하는

것은 필히 사건과 관계가 있고, 사건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사건 진행 중에는 사건 관련자를 만나면 안 되는 지라, 나는 그 분을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도 따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그 분한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 전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분은 나에게 며칠 후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마음만큼은, 그 분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으나 그 분은 얼마 전까지 나의 소속 직속상관이었고, 직원들에게도 많은 호의를 베풀었으며 개인적으로도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뒤에 모처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일단 약속을 했으니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친한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랬더니 다들 그냥 부담 없이 가서 얘기나 들어주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언처럼 '그냥 얘기나 듣고 얼른 돌아오자'라는 마음으로 약속장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약속 당일이 되니 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분에게 전화를 했고 "일 때문에 바빠서 식사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나에게 "그래도 점심은 먹잖아."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 내가 이런 저런 변명으로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그때마다 그 분은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

결국 나는 식사자리에 나갔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분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저런 덕담을 해 주셨다. 덕담의 주제는 '청렴'이었다. 이렇게 식사를 마쳤고 나는 그 분이 계산을 하기 전 재빨리 계산을 했다. 그랬더니 그 분은 나한테 "왜 네가 계산을 해."라고 다소 화를 내시면서 잠시 차에 타라고 했다.

차에 타고 나서야 그 분은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너무 당혹스럽고 놀라서 숨을 제대로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그 분은 나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유혹은 논리적이라고 했던가. 그 분은 나에게 성공논리와 뇌물을 접목시켜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너는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느냐?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면 이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성공논리를 내세우며 나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그럼에도 내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 분은 전략을 변경해서 나에게 직속상관이었던 점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강압적으로 돈을 쥐어주려고 했다. 나는 그 분에게 몇 번이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그러면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는데, 5분쯤 지났을까. 그 분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내 거절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그 분은 내 직속상관이었고, 나름대로 내 멘토였기 때문에 그 분이 귀가하시기 전까지 깍듯하게 예우하였다.

그 이후로도 나는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큰 산을 넘은 나로서는 더 이상 이런 전화가 신경 쓰일 리 없었고, 사건을 원칙대로 진행하여 사건이 가야 할 길로 잘 안내해 주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 나는 ‘왜 그 분이 내 사건과 관련해서 나에게 돈을 주려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내 생각에는 사건 관계자가 나에게 직접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루트로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나와 그 분의 관계까지도 치밀하게 파악한 그들의 계획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부패의 유혹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강력하고,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부패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그 분의 호의를 거절했으니 그 분의 이론에 의하면 고위직에 진출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이 그 디딤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힘든 상황에서도 곳곳이 내 소신을 지킨 자신에게 격려를 보내며 이 글을 마친다.

너무 늦기 전에

박 지숙

2015년 5월.

싱그럽게 피어오르는 봄, 우리나라에는 메르스 열꽃이 피었다. 병원균 전파의 주요 진원지로 알려진 그 병원은,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느끼는 공포의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환자수와 격리자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방호복으로 감싼 의료진의 모습이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일 뉴스 머리를 장식하던 어느 날 저녁. 친정 엄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누님, 내가 그 동안 잘못했어요.....흑흑...”

어릴 적, 부모님이 일하시는 가게가 있던 4층짜리 상가건물은 지하부터 옥상까지 그 전체가 나와 오빠의 놀이터였다. 특히 2층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드나들었는데, 오후 햇볕이 유난히 따스한 그 사무실에서 나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좋았고 무엇보다도 단발머리 예쁜 경리사무실 이모가 미리 준비해 놓은 과자를 먹으면 지루한 숙제까지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이모의 퇴근을 기다렸던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 눈치 없이 끼어 맞난 저녁까지 얻어먹는 날엔 이모가 더욱 예뻐 보였다. 저녁을 먹고 우리를 데려다주는 길, 양 팔에 매달리고 장난치는 우리를 귀여워해주던 그 삼촌과 이모는 곧 결혼해서 꼭 오빠와 나 같은 아들딸을 낳을 거라 했다. 또 삼촌은 엄마의 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부모님 가게 한 구석에서 우리와 놀아주다가 밤늦게까지 가지 않고 기다려 이런 저런 인생 상담을 하다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들른 2층 사무실에 이모가 없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모는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모는 우리에게 과자를 들고 오는 것도 애처로워 보일만큼 아파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

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엄마가 망설이듯 말씀하셨다.

“당분간 이모를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숙제는 다른 곳에서 하렴.”

그 후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 무섭고 슬픈 것이었다. 그건 어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이었다.

그 당시 삼촌은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길가에 서 있는 무수한 전봇대들이 삼촌의 일터였다. 오빠와 나, 둘이 매달려도 끄떡없는 우람한 팔뚝을 보며 우리는 삼촌이 전봇대를 맨손으로 타잔처럼 오르내리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나 일주일 전 일어난 사고로 삼촌은 영원히 전봇대를 탈 수 없게 되었다. 고압 전류가 번개처럼 삼촌의 몸을 관통했고, 삼촌은 살아난 대가로 왼쪽 팔을 내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매달리며 놀았던 그 팔이 없어졌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나는 나를 매단 채로 삼촌 팔이 떨어지는 악몽을 꾸었다. 삼촌은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처지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팔과 직장을 한꺼번에 잃은 남자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없다는 이모 부모님의 반대로, 둘의 결혼식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 일이 있고 한 계절이 지나기도 전에 이모는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갔다. 퇴원한 삼촌은 이모를 찾았지만 이모의 부모님이 행방을 알려줄 리 없었고, 우리 부모님 역시 잊으라고 말하는 것 이외엔 별 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매일을 술로 살다 자살까지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삼촌을 보며 엄마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지.” 하며 안타까워 하셨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방황의 끝에 삼촌이 선택한 건 ‘복수’였다. 그건 사람에게 대한 복수도 사회에 대한 복수도 아닌 전기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전기가 내 팔도, 사랑도, 평범한 인생도 앗아갔으니 나는 그놈의 전기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겠다는 피맺힌 오기

였다.

변압기, 차단기 같은 전기부품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시공도 하는 종합 전기회사를 차린 삼촌은 그 후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은 수완이 좋아서 회사도 커지고 집도 커졌지만, 직원들 점심값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사장이라는 평판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만큼 독하게 벌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며 늘 두둔하고 마음으로 지지하였다.

삼촌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건 십 년도 훨씬 지나서였다. 의수를 한 왼손이 꼼짝없이 바지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삼촌을 못 알아보았을지도 모를 만큼 삼촌은 많이 변해 있었다. 따뜻하고 다정하던 청년은 온데간데없고 욕심과 독기로 번들거리는 얼굴은 오랜만의 재회를 기다리던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진짜' 사업은 밤에 그리고 주말에 한다고 했다. 그에게 돈을 벌어주는 건 일이 아니라 밤의 술자리, 주말의 향응이었다. 혈연, 지연, 학연을 총동원한 인맥관리와 그 틈을 메워주는 돈은 일종의 투자였다. 적절한 사람을 골라 잘 '관리'한 그의 투자는 대부분 성공했고, 돈에 장사 없고 돈 위에 사람 없더라는 그의 사업 철학은 선명한 이질감으로 저녁식사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그 뒤로도 종종 그는 우리 집에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웬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시절의 이야기는 이미 빛이 바래버린 듯했다. 삶에 배신당한 독기로 시작한 일이 돈을 벌어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두껍게 쌓아 올린 그 돈방석에서 나는 냄새가 못내 불편했다. 이만큼 벌었으면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쓰면서, 그 동안 그 오기와 독기로 상처 준 사람들을 어루만지며 살면 좋겠다고 어렵게 충고하시는 엄마에게 그는 "누님, 조금만 더 벌고요."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마친 후 발전회사에 입사했다. 사회생활의 첫 문을 여는 파티에 참석한 삼촌은 "이제부터 잘 해보

자.”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그 말에 담긴 의미가 화끈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전기 자재 납품회사와 발전회사. 그 앞에서 심장이 불쾌하게 쿵쾅거리던 그 느낌은 삼촌과 내가 자주 만나지 못할 것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 신호였다.

본격적인 회사생활을 시작하면서 삼촌과 나는 역시 점점 멀어져갔다. 몇 번 삼촌의 연락을 거절하면서 어색해진 사이는 다시 몇 년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진짜 사업’을 하면서 ‘조금만 더’ 버느라 동분서주 했고, 여전히 주위에 베풀 여유라고는 없는 ‘부자 가난뱅이’였다. 가끔씩 엄마가 가져오는 삼촌의 그렇고 그런 소식은 우리를 씁쓸하게 했다.

메르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듯 숨죽인 그 때. 뜬금없이 엄마에게 걸려 온 그 전화는 바로 삼촌의 것이었다.

알고 보니 삼촌은 올 초에 자재 계약, 공사 수주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결국 납품비리,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아 구속된 상태였다. 그런데 재벌가 회장님들이 흔히 보여주는 모범대로 ‘건강상의 악화’를 이유로 입원을 신청했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의료서비스와 진료비를 자랑하는 병원에 드러누운 것. 그 때까지도 그는 이번엔 재수 없게 걸렸으니 액땀한 셈 치고 다음 사업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누워있던 응급실에 2박 3일간 머물렀던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내려지고 추가 감염자가 속속 생겨나면서 그의 몸에도 이상이 나타났다. 환자와 근접한 병상을 쓴데다가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면서 격리자로 명단에 오른 것. 아직 확진 판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메르스의 근원지인 중동의 치사율이 40%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리되지 않은 마지막을 갑자기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일까. 후회와 사죄로 시작되어 당부와 다짐으로 끝맺는 그의 전화를 받은 건 엄마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욕심과 부

당한 거래를 건디다 못해 뛰쳐나갔던 직원들,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한 친구들, 그의 밝고 깨끗했던 청년시절 모습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한 지인들.

생지옥이 된 그 곳에서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그는 그들과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었고, 설사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흔적을 조금 만이라도 지우고 싶었다. 그 동안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했지만 막상 링거를 꽂은 팔로 전화기를 들고 또 그 팔로 연신 눈물을 훔쳤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삼촌이 무사히 나와서 한 팔로도 정정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눈물의 속죄가 하늘에 닿았는지 삼촌은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고 몸도 회복되어 갔다. 그리고 얼마 후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 남은 기간을 채우려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메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통렬하게 되돌아보는 약이 되었을 것이다.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주고받았던 검은 약속은 능력이 아니라 당당하게 싸울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무능의 증거였음을, 돈 위에 사람 없다던 그의 주장은 가진 돈을 발판 삼아 무한한 욕심을 게걸스럽게 채우는 자기 자신과 거기에 장단 맞추는 세상을 향한 자위였음을 깨달았으니.

남이 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남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들 한다니까 하고 속닥거리며 양산해 내는 편법과 불법의 파편들이 우리 모두를 멍들게 하고 있다.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일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받는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위 갑과 을 모두의 노력이 필수일 것이다. 과거의 자신처럼 지금 이 순간도 알팍한 속임수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삼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더 늦기 전에 그들 가슴속의 양심의 심지를 돋우어 밝혀 보게 되기를, 그래서 자신과 같은 후회의 통한을 남기지 않기를 당부하지 않을까.

5월의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어느 오후, 삼촌과 차 한 잔 편히 마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유달산의 추억

김 영 훈

선배,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는지요? 너무도 긴 세월이 흐른 뒤라 기억 속에 아직 내가 남아있거나 할는지 모르겠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만난 때가 꼭 30년 전이니까 말입니다. 동백꽃 핀 유달산에서였지요. 잊고 있었던 그 유달산을 지난 4월 TV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날 화면 속 유달산은 축제가 한창이더군요. 노적봉 앞 광장은 고운 백색의 한복이 강강술래 군무로 너풀거리고,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 주변에 흐드러진 동백은 예나 다름없이 붉었지요. 세월은 젊은 청년의 얼굴을 주름지게 한 대신 추억을 저장하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 순간, 생각은 벌써 그 때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잊고 있었던 것은 유달산뿐만이 아니었더군요. 유달산은 30년 전 어느 푸근한 봄밤에, 감기 시작하다 엉켜버린 이야기의 타래를 술술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홍도 여행 후 목포에서 상행선 기차를 놓쳐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 연락을 받고 선배가 한밤에 부인과 함께 역에 달려 나왔던 것 생각나지요? 그리고는 우릴 곧장 유달산으로 안내했던 일도요. 신혼이지만 한 쌍의 아름다운 연인과 같은 선배 부부의 모습은 은근히 부럽기도 했었지요.

그 날 선배의 배려와 보살핌은 우리 일행이 새벽기차를 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차를 놓친 것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일행은 모두 얘기할 정도로 우린 낮선 곳에서의 몇 시간을 즐겁게 보낸 후 아쉽게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더군요. 노적봉 아래 포장마차에서 이미 술과 안주로 충분히 속을 채웠거늘, 선배 부부는 기차 출발 전 한 아름의 맥주와 안주를 좌석 밑에 밀어 넣고서 한참이나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일행은 선배와의 만남으로 더욱 풍성해진 여행의 여운을 즐기며, 밤새 상행열차 안에서 그렇게 취해갔습니다.

선배, 그런데 말입니다. 고마움은 꼭 되갚음으로써만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의 호의를 고맙게 간직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베풀의 기회가 왔을

때 작은 도움일망정 기꺼이 베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웃에 음식을 돌릴 때도 접시가 아닌 일회용 은박지에 담아내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씀이 뭘겠습니까? 되갚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가 아닐는지요?

내가 선배의 전화를 받은 건 그 후 4년 쯤 지난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없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마치 피천득 선생이 '인연'에서 "아사꼬와의 세 번째 만남은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랬더라면 선배와의 만남은 오롯이 훈훈한 추억으로만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선배는 전화에서, 아는 이 한 명을 전출 보내겠다면서 전입지에서도 그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게 해줄 것을 내게 부탁했지요. 물론 난 흔쾌히 답했고요.

내가 선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일이었지요. 주소만 바뀌었을 뿐 삶의 형편과 방식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조사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은행조차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의 소득과 재산 조사는 고작 몇 가지의 공부상 확인과 민원인의 진술, 그리고 담당자의 육안 판단에 거의 의존할 뿐, 검증이란 게 사실상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기존의 유지'라면 더욱 부담 없는 일이란 것도 모를 리 없었고요. 그럼에도 난 것처럼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으니, 아마도 내가 못한 탓이었겠지요.

전입해 온 그의 가구에 대해 몇 가지를 조사하자 안타깝게도 더 이상 '자격유지'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상황을 감지하고 불안한 낯빛을 보인 그에게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지요. 최근에서야 형편이 좀 나아진 때문인 것으로 조사의 '수위조절'을 궁리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선배에게 이를 설명할 길이 막막하더군요. 이해해 줄 거란 믿음과 책망의 불안함이 교차하면서 갈등했던 것을 선배는 압니까? 빠듯한 자취생활 속에서도 오래 전 떠나온 직장 직원의 애경사까지 빠짐없이 챙길 정도로 의리를 중요시하던 나로선 적잖이 고민될 수밖에요.

하지만 결국 양심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조사서를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요. 명예와 양심을 양보하면서까지 돌봐야 할 가치 있는 일이란 없다는 확신이 서더군요. 적어도 당시 혈기 방장한 어느 청년 공무원에겐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먼저 전화를 건 쪽은 선배였지요. 다음날 아침, 수화기 너머 전해지는 선배의 기분은 이미 몹시 상해 있더군요. 내게 '용통성 없음'을 반복 질책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요.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이지요. 그러니 "죄송하다"는 말 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배! 선배의 서운함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나의 편협한 시각과 서툴고 경직된 일처리 태도를 비난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해도, 그 이상은 뻔지 말고 삼켜야 할 말이었습니다. 선배는 전화를 끊으며 그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라도 하듯 던졌지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친구구만!"이라고 말입니다. 그보다 더한 모욕이 또 있을까요. 선배는 잊었을지 모르나, 내겐 너무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만, 그리고 지우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바로 그 말을 끝으로 선배와 나의 관계도 매듭을 지었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 경계하는 버릇도 그 후 생겼고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호의'에 대해 결정적으로 진정성을 돌아보게 된 사연 하나를 선배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은 멀어진 내 친구에 대한 얘깁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생 시절 바뀐 집주인의 동갑내기 아들이지요. 상고를 나와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한 친구와 공무원 준비를 하는 나는 매일 아침 버스정류장에서 헤어졌는데, 그 때마다 그 친구는 전 날과 아침에 피우고 남은 500원짜리 '거북선' 담배를 내게 모두 주었지 뭘니까. 동대문 시립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내겐 하루 10개비로도 충분했지만, 그 이상 남은 담뱃갑을 건네받은 날도 많았지요. 하루 10원의 도서관 사용료 부담도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때이니, 친구의 '담배 공덕'은 내게 눈물이 나도록 크고 고마운 원조임에 틀림없었지요. 그 후 자영업자로 변신을 꾀한 친구와 지방으로 발령받은 나는 서울서 가끔 만나 옛 정을 나누며 취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정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친구의 연락이 끊긴 지 7~8년 쯤 된 2002년 가을, 내가 대전으로 막 이사한 뒤의 일입니다. 그 친구가 사무실 전화로 연락을 해왔더군요. “부동산업을 하는 중인데, 대전의 주요 아파트 시세를 좀 조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지요. 반가움도 잠시,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런데 친구의 요구는 수주일 뒤 다시 이어졌는데 다름 아닌, “대전에 아까운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대신 좀 잡아 두라!”라고 하는.....

그 친구는 분명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돈벌이가 그를 그렇게 만든 모양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친구에게 요구하는 그를 더 이상 과거의 친구로 상대할 순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조심스레 충고했지만, 그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 서운함을 표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배포가 없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쓴 웃음이 나왔지요. 말단 공무원에게 ‘배포’라니요. 난 친구를 잃은 것입니다. 내 탓이 큰 걸까요? 선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어야 했나요? 어쩌면 그 친구는 오래전의 그 ‘담배 공덕’을 순수한 호의가 아닌, ‘교환가치’로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선배, 앞서 하던 얘길 다시 해보도록 하지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 다시 그 때를 생각해도 당시 선배가 나를 두고 한,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친구’라는 말이 ‘그럴 만 했다’고 보십니까? 나의 예상치 못한 일처리로 민원인에게 체면을 구겨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 말은 분명 지나쳤습니다. 물론 상황에 적합한 비유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융통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과 다른 ‘거짓’ 조사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명예나 양심보다도 융통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진정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더구나 아직 때 묻지 않은 공무원 초년생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조각공원에 이어 서쪽 다도해를 비추던 카메라가 다시 노적봉으로 돌아왔습니다. 리포터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추스르며 노적봉의 유래를 소개하네요.

「『임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 이용하였다. 이순신은 이 노적봉을 짚과 쉼으로 둘러 군량미가 산더미같이 쌓인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서 적을 공략하였다. 그 뿐 아니라 영산강에 흰가루를 풀어 쌀뜨물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왜적들이 서남해를 거슬러오다가 노적가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쌀뜨물이 바닷물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후퇴하였다.』」 라는.....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지금 다시 들어도 장군의 절묘한 기지와 배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처럼 영웅의 속임수는 때로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프로가 끝나 채널을 돌리던 중 문득 '웁거니!' 싶더라고요. 공직자의 '거짓'과 '배포'는 바로 이렇게 멋지게 써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요.

선배! 이제 그만 서운함을 푸십시오. 그리고 위로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지금 생각하니 그 때 내가 심했어. 아니, 잘못했어. 미안해!'라고요. 그래야만 상처 난 내 가슴에 새 살이 돋고, 유달산에서의 우리 만남도 빛바랜 '담배공덕'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지 않겠습니까?